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저 《일본의 켈트와 자민당》의 “허위”

注, 가정연합 (구 통일교회)에 대한 비판문에 관해서는 **갈색의 글자로**,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발언 및 가정연합 (구 통일교회)의 출판물에서의 인용에 관해서는 **푸른 글자로** 구별하고 표기한다.

들어가는 말

일본 Wikipedia 에서는 하시즈메 다이자부로(橋爪大三郎) 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참가하고 있던 쟈코토(全共闘, 역자 주: 일본에 있었던 무장투쟁 대학생들의 연합조직. 전학공투회의의 준말)에서 베트남 반전 운동의 일환으로 신주쿠 역의 터미널을 통과하는 화물열차를 멈춰 소란을 일으킨 후에 체포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도망쳤다.

일본복음루터교회(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의 신자(기독교 신도)이며, 복음루터교회의 행사 및 강연회에서 자주 강사를 하고 있다.

오오사와 마사치(大澤真幸)와의 공동 저서 《불가사의한 기독교 (ふしぎなキリスト教)》는 신서 대상(新書大賞) 2012 을 수상했지만, 기독교 연구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또 그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노동자의 우군 마르크스-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남자 마르크스 (労働者の味方マルクス—歴史に最も影響を与えた男マルクス)》 (겐다이 쇼칸〈現代書館〉, 2010 년)

《하시즈메 다이자부로의 마르크스 강의 (橋爪大三郎のマルクス講義) (기가진에이 소우쇼 〈飢餓陣営叢書〉)》 (겐시샤〈言視舎〉, 2014 년)

이상의 것으로 보면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청년기로부터 좌익 사상에 치우쳐 있고,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비판서가 좌익적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시즈메 씨가 이 서적을 쓸 때 가정연합 (구 통일교회)에 관한 참고 문헌으로서 아사미 사다오 (淺見定雄) 저 《통일협회=원리운동—그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책 (統一協会=原理運動—その見極めかたと対策)》 (일본기독교단출판국〈日本基督教団出版局〉)과 아리타 요시후 (有田芳生) 저 《개정신판 통일교회란 무엇인가? (改定新版統一教会とは何か)》 (오오쥬키 서점〈大月書店〉) 를 사용하고 있다 (360 쪽).

아사미 사다오 씨가 어떤 인물인지를 가정연합이 출판한 반론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아사미 사다오 씨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도 극단적인 문헌비평학을 중심한 **좌익 리버럴리즘에 서 있는** 것이고, 그가 소속하는 일본기독교단 **좌익 활동가와 궤도가 동일한** 것이다.

오늘날 그의 활동은 일본 기독교의 영성(靈性)의 저하와 좌경화(左傾化)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아사미 씨의 **좌익 경사(傾斜)**는 사상 면만이 아니라 행동 면에서도 볼 수

있다. 좌익 단체 주최의 각종 집회에서 편들기,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를 통한 통일교회 비판(1987년 5월 11일호 “침묵할 수는 없다(黙ってはいられない)”), 통일교회 신도 납치 감금 개종 활동에 가담 등의 아사미 씨의 활동이 그 예다. 그리고 그는 일본공산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혁신통일간(革新統一懇)》의 미야기 현에서의 활동 멤버이기도 하다(《아카하타》1981년 2월 17일호). 이와 같이 그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좌익 운동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아사미 사다오 씨에 대한 반론(淺見定雄氏に対する反論)》 5~6쪽, 고젠샤〈光言社〉)

아사미 사다오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함으로써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에 관해서 말하면, “보이는 몸”은 음(陰)이기에 “안 보이는 내성”(양〈陽〉)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니 (평범과 반대인 울트라 관념론!)’ (《아사히 저널(朝日ジャーナル)》 1984년 9월 14일호 게재, 아사미 씨의 발언)

아사미 씨는 유물론이 ‘평범’한 생각이라고 한다.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영(靈)과 종교에 관한 것인데요, 나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도들 중에 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도 유치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사탄이 실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은 영(靈)이나 초경험적(超經驗的)인 세계는 거의 다 심리적인 레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들(방언)로 말한다는 것은 아기가 어느 나라 말이라고 결정되기 전에 혀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호세키(寶石)》 고분샤〈光文社〉, 226~227쪽)

그는 영의 존재이나 사탄의 존재는 ‘심리적인 레벨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방언)로 말한다는 것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제 12장 10절에서 “성령 체험”의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 성령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인 것이다.

다음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씨에 대해서 말하면, 아리타 요시후 씨는 **부자(父子) 2대에 걸쳐서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다. 1978년 4월의 교토부 지사 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이 패배했을 때, 아리타 씨의 아버지인 미즈오(光雄) 씨는 당시 일본공산당 교토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던 인물이다. 아리타 요시후 씨에 관해서는 《아리타 요시후의 편향 보도 전속력(有田芳生の偏向報道まっしぐら)》(겐진샤〈賢仁舎〉)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아리타 씨는 1986년 9월경, 탈퇴 설득 전문가인 미야무라 다카시(宮村峻) 씨와 만나, 약 4년에 걸쳐 전 신자 100명 이상(注, 미야무라 다카시 씨가 탈퇴시킨 전 신자라고 생각된다)를 취재해, 출판 준비를 한 가정연합 비판서 《원리운동과 젊은이들(原理運動と若者たち)》(교육사료출판회〈教育史料出版会〉)를 1990년 12월 10일에 출판했다. 출판 3일 전인 12월 7일 그는 일본공산당으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았다. 이 공산당 제적 처분에 의해 그는 반 가정연합 활동을 하기 쉬운 입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참조, 《아리타 요시후의 편향 보도 전속력》 58~65쪽). 그는 공산당 제적 후에도 ‘**뿌리부터 공산주의 사상의 “신봉자”**’ (동, 63쪽)이며 반 가정연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1978년 교토부 지사선거를 패배하고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일본공산당 위원장(당시)은 ‘승공연합과의 싸움은 중대하다. 대중투쟁, 이데올로기, 국회, 법률의 각 분야에서……협동하고 전면적인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민당에 대해서는 “승공연합과 같이 하면 반격을 받고 손해를 본다”라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승공연합 퇴치”의 선두에 서는 것이 후세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룩한 싸움”이다’ (《아카하타(赤旗)》 1978년 6월 8일호)라고, 좌익 세력의 “대동 단결”을 호소했다. 이에 호응하듯 변호사, 정치가, 목사, 저널리스트, 대학 교수 등이 연계해, 같은 해 11월 13일에 “원리운동을 우려하는 모임(原理運動を憂慮する会)”이 발족. 그 모임을 배경으로, 아사미 사다오 씨, 가와사키 교코(川崎経子) 목사(일본 그리스도 교단 <日本キリスト教団>)가 반대 활동에 나선 것이다. 좌익세력은 1970년대에 일본 적화(赤化)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정연합의 우호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이 일본의 공산화에 방어막이 되었다는 것이다. 좌익세력에 있어서 승공연합 및 그 우호단체인 가정연합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1966년에 시작된 납치감금에 의한 강제 탈퇴 설득 사건은 현재까지 4300건을 넘고 있다. 1987년은 탈퇴한 전 신자에 의한 ‘청춘을 돌려달라 재판(青春を返せ裁判)’이 개시된 해이며, 사회당(社會黨)계나 공산당계의 좌익 변호사가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 연락회(全国靈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전국변련 <全国弁連>)를 결성한 해이다. 또, 아사미 사다오 씨가 《통일협회=원리운동—그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책》을 출판. 또한 아사히신문이 소위 ‘영감상법 박멸 캠페인’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좌익세력이 단결해 가정연합 파괴의 총공격을 가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일본기독교단인 교단을 앞세워 반 가정연합 활동을 하자고 결의를 한 해이기도 하다(《그리스도신문(キリスト新聞)》 1988년 4월 9일호).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좌익 사상을 가진 반 통일교회의 아사미 사다오 씨와 아리타 요시후 씨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日本のカルトと自民党)》을 썼지만, 그도 또한 일본복음루터교회의 신자이면서 전 전공투(全共闘)라는 반 통일교회, 좌익 사상을 가진 입장에서, 가정연합과 자민당을 알아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집필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一, 반대파의 엉터리투성이의 “피가름” 비판—소위 “피가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의 ‘합동결혼식에(合同結婚式へ)’라는 소제목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혼의 남녀는 통일교회의 엄격한 감시하에 놓인다. 연애로 반려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불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선명의 어렌지(arrange)에 의해 결정된 상대와 문선명 부부의 축복을 받아 결혼하게 된다’ (230~231 쪽)

그는 ‘미혼의 남녀는……엄격한 감시하에 놓인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결정된 상대와……축복을 받아 결혼하게 된다’고 하지만 합동결혼식은

중매결혼과 같은 것이고, 참가자에게 축복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일은 없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이 축복의 상대를 추천하는 당시에든 참가자는 결혼상대의 추천을 문선명 선생부터 받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대한 면담을 통한 의사확인이 있었고, 그 다음 축복신청서를 제출하고 희망자만이 축복을 받았다. 게다가 신자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 후에 마음을 바꾸어 축복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포기할 수도 있었다. 축복에 있어서 신자의 주체적 의사가 무시된 적은 없고, 당연히 존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오늘날 합동 축복결혼식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2 세 신자와 기성 축복의 커플이다. 2 세 신자는 부모가 축복 상대를 찾거나 교회의 매칭 서포터라는 축복의 상대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일정 기간의 교류를 거쳐 두 사람이 축복을 받아 결혼해도 좋다고 합의하면 합동 축복결혼식에 참가한다. 또 이미 결혼한 기성 커플의 축복도 많다. ‘문선명의 어랜지에 의해 결정된 상대’는 아니다. 또한 지금은 문선명 선생이 사망하셔서 ‘문선명의 어랜지에 의해 결정된 상대’는 없는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아사미 씨와 아리타 씨가 비판하기 위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아사미 사다오 씨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는 “망측한 섹스교”가 횡행하고 있었다 (아사미 사다오 《통일협회=원리운동》 71 쪽). 문선명이 통일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 흐름 주변이라고도 한다.

*

섹스교란 무엇인가? 종교적 의식이다,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칭해, 교단의 지도자가 신도와 성행위를 행한다. 혹은, 신도끼리 성행위를 행하게 한다’(232~233 쪽)

그러나 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서는 ‘교단의 지도자가 신도와 성행위를 행한다. 혹은 (부부 이외에) 신도끼리 성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 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은 “순결”과 “정조”를 생명시하는 교단이다.

(1) 문 선생의 북한에서의 두 번의 구속사건에 있어서의 ‘피가름’ 비판의 “허위”

아사미 사다오 씨는 《통일협회=원리운동—그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책》의 ‘성스캔들(性のスキャンダル)’이라는 소제목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선명은 1944 년 일본 패전 전 해에 서울로 돌아와 46 년에는 북한의 평양으로 돌아감. 그런데 거기서 1946 년 8 월에는 “혼음”에 의한 “사회질서혼란”의 혐의로 대동보안소(경찰서)에 3 개월간 수용됨. 그리고 48 년 2 월에는 어떤 실업가의 아내와의 “강제결혼”의 현행범이 되고, 흥남 형무소에서 징역 5 년(또는 5 년 반)의 실형(상대의 유부녀도 10 개월의 실형)에 복역함. 문의 섹스 교주로서의 시작이다. (통일협회 측은

이러한 사건을 공산주의 권력의 모략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그의 죄명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란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간단 명료하게 섹스에 관한 것이었다’(72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아사미 씨의 저서를 거부감 없이 인용해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의 “피가름” 의식 (“血分け”の儀式)’이라는 소제목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선명이 신도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교리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피가름 의식”이라고 한다. 문선명은 종교 활동을 시작한 무렵부터 성적 스캔들의 소문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1946 년에 수감된 것은 “혼음(混淫)”의 혐의이다. 1955 년의 이화여대 사건도 피해 여성의 수기 등으로 내실(內實)이 밝혀졌다 (아사미, 72~76 쪽)’ (236 쪽)

그러나 아사미 사다오 씨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이러한 기술(記述)은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다. 문 선생이 북한에 갔던 1946 년 6 월의 다음달에 문 선생의 제자가 된 김원필 씨는 1946 년 8 월 11 일에 문 선생이 대동보안서에 연행되어 구속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선생님이 46 년에 북쪽으로 오신 뒤……매일처럼 예배와 집회를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눈물이 가득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단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꽤 조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셨을 때 신분증명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외형은 목사라는 형태로 밀사(스파이)로 보내왔다는 의심을 가지고 46 년 8 월 11 일 선생님은 보안서(경찰서)에 연행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원류(伝統の源流)》 고젠샤 <光言社> , 38 쪽)

문 선생은 이승만 정권(남한) 이 보낸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고 연행된 것이다. 1946 년 8 월 11 일은 일요일이었다. 문 선생과 제자가 예배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을, 확실히 문 선생을 연행할 수 있는 날을 노려 경찰이 짓밟은 것이다.

그런데 르포라이터 야마구치 히로시(山口浩) 씨는 그 저서 《원리운동의 맨얼굴(原理運動の素顔)》에서 ‘1948 년 8 월 17 일 문선명이 평양 대동보안서(경찰)에 체포됐다. 신흥종교문제연구가 탁명환 씨에 따르면 체포 이유는 “사회질서 혼란 혐의”라고 한다. 탁 씨는 그 당시 사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난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일 출판 <エール出版> , 168 쪽)고 말하고 있다. 야마구치 히로시 씨의 저작은 체포된 연월일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 일요일에 ‘난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고 말해, 엉터리투성이의 기술을 하고 있다.

또 1948 년 2 월 22 일 문선생은 북한 내무성에 연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이 사건에 관하여 김원필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48 년의 2 월 22 일의 일요일이었습니다만, 관현이 오고, 선생님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10 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작 2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상당히 왔을 때 관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연행되었을 때 나는 선생님 옆에서 걸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시가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여러 소리가 났지만, 내 귀에는 선생님을 야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저와 여성 식구 2명(총 4명)이 공산당 당국의 내무성으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여성 식구는 2 일째에 구속이 풀렸고, 나는 4 일째에 나왔습니다. 선생님만 남겨두고, 연행된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71~72 쪽)

북한 내무서에 구속된 사건도 일요일 예배가 열리는 것을 노리고 공산당 당국이 짓밟은 것이다. 구속된 이유는 기독교 목사로부터 공산당 당국에 80 통을 웃도는 투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사로부터 당국에 ‘80 통의 투서(가 있어) 선생님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 중심적인 신자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되어, 몇 십년 동안 인연을 가져온 교회를 딱 자르고 바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동) 라고 김원필 씨는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아사미 사다오 씨는 ‘48 년 2 월에는 어떤 실업가의 아내와의 “강제결혼”의 현행범이 되고, 흥남 형무소에서 징역 5 년(또는 5 년 반)의 실형(상대의 유부녀도 10 개월의 실형)에 복역했다. 문의 섹스 교주로서의 시작이다. (통일협회 측은 이러한 사건을 공산주의 권력의 모략이었다고 항변하지만 그의 죄명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란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간단 명료하게 섹스에 관한 것이었다)’ (《통일협회=원리운동》 72 쪽)라고 말하고 있다. 아사미 사다오 씨의 엉터리투성이의 기술이다.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원리운동의 맨얼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49 년 5 월, 북한의 괴뢰 집단의 경찰은 문선명을 혼음죄로 체포했다. 지금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여사의 남편이 고발했기 때문인데, 당시 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신도 김모 여사와 강제적으로 혼인식을 하는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체포된 것이다. 김모 여사는 징역 10 개월, 문은 5 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3~164 쪽)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불과 몇 페이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탁씨의 조사에 따르면……여성신자 김모 여사와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1949 년 2 월 22 일 중혼죄로 다시 문이 체포됐다. 중혼죄는 죄가 무겁다. 5년의 형을 받아 문은 흥남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이 탁 씨설(說) 이외에도, 중혼죄가 아니라 혼음죄로 체포된 것이라는 설(說)도 있다. 그것은 전에 공개한 《사회악과 사교운동》 (일본어 번역 책은 《원리운동의 비사(原理運動の秘事)》)이다’ (169 쪽)

이상과 같이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1948 년 2 월 22 일의 사건에 대해 163 쪽에서 ‘1949 년 5 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69 쪽에서는 ‘1949 년 2 월 22 일’ 이라고 말하는 등, 모두 연수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163 쪽에서는 달까지도 잘못 쓴, 기본적인

점에서 정보가 잘못되어 있고, 그 기술 내용 자체도 엉성하고 신용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1948년 2월 22일은 일요일이다. 바로 예배를 하려고 할 때 공산당 당국이 짓밟은 것이다. 일요일에 짓밟은 것은 문 선생을 확실히 연행하기 위함이다. 연행된 4명 가운데 여성 신자 2명은 2일 후에 석방됐고, 김원필 씨도 4일 뒤 석방되어 문 선생 한 명만 남겨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문 선생은 같은 해 4월 7일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여성 신자 2명은 연행 후 2일 후에 석방되고 있으며, 여성 신도가 실형 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아사미 씨는 '상대의 유부녀도 10개월의 실형',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김모 여사는 징역 10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은 여성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덧붙여서, 전 아카하타 기자의 하기와라 료(萩原遼) 씨의 저서 《음교의 메시아·문선명 전(淫教のメシア・文鮮明伝)》은 실형 판결을 받은 여성 신자가 있다는 기술이 전혀 없다.

이 정도로 아사미 씨나 야마구치 씨의 기술 내용은 근거가 없는 이상하고 엉성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2) 이화여대 사건(1955년)에 관련된 '피가름' 비판의 "허위"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아사미 사다오 씨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선명은 종교 활동을 시작한 무렵부터 성적 스캔들의 소문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1955년의 이화여대 사건도 피해 여성의 수기 등으로 내실(內實)이 밝혀졌다(아사미, 72~76쪽)' (236쪽)

이 이화여대 사건에 대해 아사미 사다오 씨는 《통일협회=원리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도 자유롭게 되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옴.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은 소위 "이화여대 사건"과 같은 무시무시한 섹스 사건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서는 와가 씨와 하기와라 씨 외에 야마구치 히로시 씨의 《원리운동의 맨얼굴》(에일 출판사)을 참조(參照)하길 바란다. 거기에는 문의 먹이가 된 전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의 생생한 고백도 실려 있다' (72~73쪽)

후술하지만 이화여대 사건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며 "섹스 사건"이 아니다. 또 와가 신야(和賀真也) 씨가 기술하는 "피가름"이 없고, 신자 부부가 가정을 가질 때 부부간에서 행하는 종교적 의식인 '삼일행사' (注, 이 의미는 후술한다)의 내용일 뿐이다. 그리고 하기와라 료 씨의 저서의 형편없고 허위에 찬 것에 대해서도 후술한다.

그런데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원리운동의 맨얼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5년 7월 4일이었다. 죄명은 “불법 감금 혐의”와 “병역 기피”. 당시 신문에 일제히 게재되었다. “부녀를 농락한 문교주의 행상(行狀)” “엽색(獵色)행위, 문교주는 남편이 있는 김순창(가명 36)과 동 협회 단칸방에서 쾌짌한 행위에 이르렀다”(186 쪽)

또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교주에게 청춘을 바친 한 여성의 고백

이하진 씨(가명)는 검소한 벽돌색 스웨터에 검은 스커트, 속발(束髮)로 한 수수한 중년 부인이었다. 화장기 없는 가름한 얼굴은 전형적인 미인 얼굴로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직업을 가진 부인이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밤에 만났기 때문이다. 이하, 일문일답을 한다.

—당신은 당시 이화 여대생이었습니까?

이하진 씨: 네.

—몇 학년이었습니까?

이하진 씨: 4학년입니다.

—문선명에게 ‘피가름’을 당한 사실이 확실합니까?

이하진 씨: ……(묵묵히 끄덕임)

—그때까지 당신은, 남성 관계는?

이하진 씨: ……없습니다.

—그러면 처녀를 문선명에게 바친 것이 되지요?

이하진 씨: ……(묵묵히 끄덕임)

—주어도 좋다고, 그때, 생각했습니까?

이하진 씨: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체포된 것을 계기로 이씨는 통일교에서 떠났다’(192~193 쪽)

이하진 씨(가명)에 대한 야마구치 히로시 씨의 인터뷰 기사(記事)는 하기와라 료 저 《음교의 메시아·문선명 전》 77~78 쪽에도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화여대 사건의 진상을 《수난의 현장(受難の現場)》(고젠샤)이 정리해 주고 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신문사가 기사로 자주 보도했다. 《수난의 현장》에서 당시의 주요 신문 기사를 이하 다룬다.

‘불법감금 등의 혐의—통일교회 교주를 체포 (《경향신문》 1955년 7월 6일)

……종교계에 큰 파문을 던져 일부 교회에서는 사교라고 말하는 등 상당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왔지만, 오래 전부터, 치안국, 특수정보과는 검찰측과 협의 하에 동교(同敎)에 대한 내정을 계속해 오고, 4일 오후 5시 마침내 동교(同敎) 교주 문선명(36) 씨를 병역법위반 및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123 쪽)

‘문교주 등, 체포 기소(《평화신문》 1955년 7월 30일자)

……통일교회 사건은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어 29일 교주 문선명 씨를 비롯한 유효원,

유효민, 김원필 씨 등 4 명은 병역법 위반 및 징발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유효영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각각 체포 기소되었다’ (124 쪽)

‘문교주에게 징역 2 년—어제 통일교 사건 구형(《평화신문》 1955 년 9 월 21 일자) ……이날 공판장은 동 통일교의 남녀 신도들로 입주의 여지없이 초만원이었지만,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던 교주 · 문 피고의 **간통혐의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 상기의 죄목만으로 기소된 것이다’ (124~125 쪽)

‘문교주만은 무죄—통일교회 사건 판결 (《경향신문》 1955 년 10 월 5 일자) 통일교회 사건이 4 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드디어 판결을 받았으나 당 사건의 주인공인 교주 · **문선명 피고는 무죄가** 됐고, 그 외 4 명의 피고는 유죄로 판결됐다. 이들은 모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일이다**’ (126 쪽)

이상과 같이 이화여대 사건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며 아사미 사다오 씨가 말하는 ‘**섹스 사건**’이 아니다. 또 야마구치 히로시 씨가 쓴 “**“피가름”을 당한 사실**”이라고 말한 ‘간통혐의’ 자체가 없었던 재판이다. 게다가 기소된 병역법 위반에서도 문 선생은 무죄였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탈퇴한 이하진(가명)이라는 전 신자 여성을 세우고 있다. ‘간통혐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라는 여자를 찾았다는 것인가? 매우 의문스럽다. 이치가 맞지 않는 증언이다. 모든 것이 만든 이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러한 여성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증언이 실로 모호한 기술로 되고 있다.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그 여성이 ‘**묵묵히 꼬덕임**’ 이라고 밖에 쓰지 않은 것이다.

덧붙여 야마구치 히로시 씨는 《원리운동의 맨얼굴》에서 ‘**재판에서는 무죄가 되었지만, 아니 뎨 굴뚝에 연기나라**’ (189 쪽) 라고 말하는데 드라이 아이스에 온수를 뿌리면 불은 없어도 연기와 같은 것이 뿜개뿜개 난다. 그리고 “연기”가 없어진 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것처럼 악의(惡意)가 있으면 불 없이도 얼마든지 “연기”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언론 보도가 사실을 무시한 “인상조작(印象操作)”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3) “피가름”의 증상모략의 뿌리—김경래 저 《사회악과 사교운동》 (일본어 번역 《원리운동의 비사》)

전 올림픽 신체조 선수 Y 씨가 반대 목사로부터 설득을 당해 탈퇴했을 무렵, 전 신자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거기에 추종한 것처럼 반 가정연합 저널리스트와 반대 목사도 함께하여 “피가름” 캠페인을 광적으로 했다.

반대파에 의한 수많은 가정연합 비판서가 출판되고 있지만 그 비판서의 대부분에는 “피가름”의 증상모략이 쓰여 있다. 한국의 고참(古參) 신자(36 가정)를 포함해, 전 신자 중 한 사람도 체험자나 목격자가 없는데도 “피가름”이 있다고 왜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거짓말도 백 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며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 반복되면서 전 신자가 믿을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뇌”이다.

비판서에 쓰여진 “피가름”의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각각의 서적을 읽고 비교해 정보의 출발점을 조사하면 결국 “피가름”의 중상모략의 뿌리는 한국에서 출판된 김경래 편저 《사회악과 사교운동》(저작일자 1957년 7월 15일)이라는 한 권의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원리운동의 비사(原理運動の秘事)》라는 책 제목으로 1967년 12월 20일 한국서적센터(韓國書籍センター)에서 출판되었다.

김경래 편저 《사회악과 사교운동》은 원래 가정연합과는 무관한 박태선 목사를 감람나무라고 하는 교회(전도관)를 비판한 서적이며, 가정연합에 관한 부분은 10%도 안 된다. 그 번역본을 출판할 때 일부러 《원리운동의 비사》라는 책 제목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악의(惡意)가 있고 비상식이다. 아마 번역자나 출판사에게 ‘가정연합을 비판하자’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오른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덧붙여서 이 번역서를 일본에서 출판하는 시기는 당시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던 ‘부모를 울리는 “원리운동”’이라고 하는 반대 캠페인 시기와 겹쳐 있다.

이 김경래 씨의 저작(著作)의 방법이나 자세에 대해서는 반대파 중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의 전 기자, 하기와라 료(萩原遼) 저 《음교의 메시아·문선명 전(淫教のメシア・文鮮明伝)》(반세이사 <晩聲社>)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 김경래 씨의 저서는 피가름교에 대한 비판을 서두른 탓에 김백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필자 김경래 씨의 말을 김백문의 말처럼 따옴표로 묶고, 문필가가 지켜야 할 초보적인 규칙에 반한 부분이 적지 않다’(96~97 쪽)

김경래 씨가 집필한 1957년 전후는 1955년 5월 11일 이화여대의 교수나 학생 10여명이 통일교의 신앙을 둘러싸고 퇴학처분을 받은, 소위 “이화여대 사건”이 일어나 (《한국일보》동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동년 5월 17일자, 《서울신문》동년 5월 15일자), 같은 해 7월 4일 다양한 추측들이 남무하는 가운데 문 선생과 통일교회 간부 4명이 “병역법 위반 및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치안 당국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통일교회가 “음란 종교”라는 풍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경향신문》동년 7월 6일자, 《평화신문》동년 7월 30일자).

김경래 씨는 그때의 풍문 (문 선생에게 간통의 의혹이 있지 않을까 등)을 토대로 가정연합(구 통일교회) 부분을 저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 선생은 서울지검에서 ‘병역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4일에 서울 지방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결백이 증명되었다.

이런 확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가름”의 증상모략이 여전히 계속되어 왔는가? 그것은 반대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선생을 알아보이게끔 하자’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틀림없다.

당시 신문을 읽으면 문 선생이 구속된 것은 “병역법 위반”의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의 법정기록의 정식 복사 문서(1974년 7월 1일자)에도 ‘Violation of Military Draft Law’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그것이 ‘병역법 위반’이었음이 명확하다 (《OUR RESPONSE》 253쪽).

이 “피가름”의 증상모략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그 출발점은 당시 퍼져 있던 “풍문” 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전 아카하타 기자 하기와라 료 씨의 저서 《음교의 메시아 · 문선명 전》의 억지 논리

반대 목사가 1980년대 탈퇴 설득에 사용한 서적에 하기와라 료 저 《음교의 메시아 · 문선명 전》(반세이사)가 있다. 반대 목사는 이 서적을 근거로 “피가름”의 증상모략을 해왔다.

예를 들어 일본기독교단의 기관지 《교단신보》 1986년 4월 26일호에 가와사키 교코 목사가, 친족에 의해 감금된 가정연합 신자를 탈퇴 설득할 때, 하기와라 료 씨의 서적을 읽게 하고 동요시켰다고 한다. 같은 기사가 《교단신보》 1987년 4월 4일호의 제 2면, 동 1987년 11월 7일호의 제 1면에도 기재되어 있다.

반대 목사는 이 하기와라 료 씨의 저서를 읽으라고 하면서 가정연합 신자를 탈퇴시키기 위한 설득을 해왔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음교의 메시아 · 문선명 전》 때문에 탈퇴를 한 전 신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 하기와라 씨는 무엇때문에 “피가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① 정진홍 씨의 “추론”에 기초한 논문

하기와라 씨는 우선 한국신학연구소의 연구지 《신학 사상》 75년 가을호 게재의 정진홍(鄭鎭弘) 씨의 논문 《종교제의(祭儀)의 상징 기능》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하기와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가름은 통일협회가 시작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25년에 걸쳐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서울에서 필자의 손에 들어온 한 권의 학술 잡지에서였다’ (10쪽)

‘240쪽에 걸친 조선어 학술지를 읽는 가운데 《종교제의(祭儀)의 상징 기능》의 논문을 보고 필자는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집단 결혼식이야말로 피가름의 의식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 것이었다’ (16쪽)

하기와라 씨는 정진홍 씨의 논문을 베이스로 통일교회에서는 “피가름”을 하고 있다는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하기와라 씨가 말했듯이 이 논문이 “피가름”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실은 이 하기와라 씨의 발언에는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하기와라 씨는 《음교의 메시아 · 문선명 전》의 자료편에 “그 증거”로 하는 정 씨의 논문을 번역해서 수록하고 있다 (144~166 쪽). 그걸 읽으면 정 씨 자신이 ‘성혼’이나 ‘제의(祭儀)적 양성 구유화(兩性具有化)’라는 관점에서 추론(推論)해 볼 때, ‘적어도 일정한 단계까지는 (예를 들면 3 쌍 성혼식이나 33 쌍 성혼식까지는) 그러한 “의례적 성교”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60 쪽), ““피가름”의 현실성이 추측된다...’ (164 쪽)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정 씨는 ““의례적 성교”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추론(推論)하고 있을 뿐, 구체적 증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기와라 씨는 거기에다 더 비약해 피가름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날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정 씨의 ‘적어도 일정한 단계까지는 (예를 들면 3 쌍 성혼식이나 33 쌍 성혼식까지는) 그러한 “의례적 성교”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성혼식에 참가한 한국의 고참(古參) 전 신자(36 가정)도 ‘피가름’이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② 전 신자의 필기 노트

다음으로 하기와라 씨는 《아사히 저널 (朝日ジャーナル)》 1978 년 10 월 6 일호에 기재한 와가 신야(和賀真也) 목사의 문장을 증거로 하고 있다 (30 쪽).

와가 목사의 뉴스 소스(source)는 전 신자의 필기 노트이다. 거기에는 하기와라 씨가 추측하는 ‘문 선생과 육체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일체 없고, 조금도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게다가 그것은 하기와라 씨가 문제로 삼고 싶어 하는 “피가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부에게서 만” 행해지는 ‘삼일행사’를 어떤 전 신자가 노트에 써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역시 “피가름”의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

그런데 와가 목사는 그 저서 《통일협회와 문선명(統一協會と文鮮明)》(신교출판사 <新教出版社>)에서 부부간에서만 행하는 ‘삼일행사’에 관한 질의응답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추잡한 표현을 보태서 마음대로 덧붙여 게재하고 있다(292~296 쪽).

또 가와사키 교코(川崎経子) 목사는 ‘첫날밤의 하나하나의 동작까지 상세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매우 추잡하니까 나에게서 그것을 표기할 용기가 없다’(《원리에 들어간 젊은이들—구출은 빠를수록 좋다》(「原理に入った若者たち」—救出は早いほどいい)》 42 쪽)라고 말하고 있다. 하기와라 씨 자신도 《음교의 메시아 · 문선명전》에서 이 삼일행사를 ‘추악한 의식’(29 쪽)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과연 추잡한 것일까? 일반 기독교에서도

신도의 신앙지도로서 Theodore Bovet(テオドール・ボヴェー) 저 《진실한 결혼(眞実なる結婚)》 (요르단사 <ヨルダン社>), 동저 《성과 사랑의 발견(性と愛の発見)》 (YMCA 출판), H·P·단(H·P・ダン) 저 《사랑과 성과 결혼 생활(愛と性と結婚生活)》 (상파울루) 등, 부부의 성생활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서적이 많이 출판되어 있다.

가정연합의 ‘삼일행사’는 부부가 원죄(原罪)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가정을 시작할 때의 중요한 종교의식이다. 의식인 이상 그 순서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정중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가와사키 목사처럼 종교 의식임을 고려하지 않고 ‘추잡하니까’라고 속세적(俗世的) 판단을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너무 견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명예훼손이 된 전 신자 김명희의 증언

또, 하기와라 씨는 “피가름”에 관한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하고, 김명희 씨(전 남성 신자)의 발언을 증거로 하고 있다(34~40 쪽). 그러나 김 씨는 이 건으로 한국 법원에서 ‘명예훼손’ 등의 죄상(罪狀)으로 심판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하기와라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 굳이 그것을 증거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음교의 메시아·문선명전》의 후기의 말미에 있는 <보유(補遺)>에 작은 글씨로 ‘고소인 김명희 씨는 소장(訴狀) 제출 후 통일협회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패소하고 모습을 숨겼다고 한다. 한국중앙정보부(KCIA)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통일협회를 고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패소’가 김 씨의 주장을 그냥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김 씨의 고소도 한국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다시 한번 되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 쪽) 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 역시 전 아카하타 기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악의(惡意)가 가득한 기술이다. 한국의 대법원이 “허위의 판결”을 했다는 듯 문체 발언을 하고, 한국의 법정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하기와라 씨가 “피가름”의 증거로 제시한 전 신자 김명희 씨의 발언 자체도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았다.

④ 탁명환 씨의 증언

게다가 하기와라 씨는 “피가름”의 증거로서 ‘한국 연구자의 연구 성과로 설명해 보자’(《음교의 메시아·문선명전》 44 쪽)라고 말해, 납치 감금에 의한 강제 탈퇴 설득의 선구적 사람 모리야마 사토시(森山諭) 목사의 저서와 같이, 탁명환 씨의 증언을 담으면서 독자적인 논술을 하고 있다.

이 탁명환 씨의 “피가름”의 증상모략이 사실과는 달리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통일교회 측이 추궁했을 때, 탁 씨는 1978년 9월에 통일교회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기와라 씨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때문인지 개별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굳이 ‘한국의 연구자’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앞에서 게재한 책의

권말(卷末)의 ‘보유(補遺)’에서 ‘탁명환 씨가 그 후 “저것은 헐박받아서 쓴 것이다”라고 그 경위를 공표해 반격했다’ (193 쪽)라고 말해, 탁 씨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1993 년 10 월 27 일에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한 와이드 쇼에서 탁명환 씨 스스로가 ‘통일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섹스 교리이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증거가 없었다**’ (박정화 저 《나는 배신자(私は裏切り者)》 224 쪽)라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런 정보를 아무리 써도 증거가 안 된다. 덧붙여서 이 와이드 쇼에 함께 참가한 36 가정의 전 신자 유효민 씨가 프로그램에서 “피가름”을 부정한 것을 박정화 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피가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36 가정의 유효민 씨에게 주목이 집중되고, 유 씨 아내가 문 씨와 섹스를 하고 “피가름”을 했는지 라는 (사회자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긴장했다.……큰 기대와 달리 유 씨는 “피가름”을 부정했다. 자신들(유효민 씨 부부)이 축복을 받았을 때 **문 선생과의 “피가름”은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동, 223 쪽)

하기와라 료 저 《음교의 메시아 · 문선명전》은 ‘36 쌍의 결혼식까지는 문선명이 직접 신부에게 피가름을 하고, 그 여성들을 신랑에게 주었다’ (24 쪽) 라고 쓰여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이다.

⑤ 김경래 저 《원리운동의 비사》에 대해서

게다가 하기와라 씨는 공교롭게도 하기와라 씨 스스로가 ‘**비판을 서두른 탓에 ……문필가가 지켜야 할 초보적인 규칙에 반한 부분이 적지 않다**’ (96~97 쪽) 라고 비평하고 있는 김경래 저 《원리운동의 비사》를 그 증거로 꼽고 있다.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책에서 일부러 인용하고 있는 하기와라 씨 자신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하기와라 씨는 김경래 씨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개찬(改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기와라 씨는 ‘(문 선생은 평양에서) **광해교회라는 명칭의 교회를 세우고 그 중심에 들어갔다**’ (64 쪽)라고 썼지만, 김 씨의 저서에는 ‘문 선생이 **광해교회의 중심에 들어갔다**’고는 어느 곳에도 쓰여 있지 않다.

김경래 씨의 저서에는 ‘**그들 (이용도 목사, 황국주 목사의 제자)은 광해교회라는 간판을 세우고 밤낮 없이 모여서는 손을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용도), 황(국주)의 두 사람이 분열해 은퇴한 뒤 즉 8·15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이 집단에 한 명의 청년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문선명이었다. 문은 그 당시 국내에서 일류에 속하는 부호 박모씨의 시어머니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청결한 성교를 함으로써 혼음파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여기서 그들의 원조인 이(용도), 황(국주)과 문선명의 중간에는 당연히 무명의 혼음파 10 여명이 개재(介在)했다고 봐야 한다**’(《원리운동의 비사》 43 쪽)이라고만 있을 뿐이다.

즉,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하기와라 씨가 말하는, 문 선생이 ‘**광해교회라는 명칭의**

교회를 세우고 그 중심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광혜교회의 신도가, 이 목사, 황 목사의 분열 후에, 단정할 수는 없어도, 문 선생의 아래로 몇 명이 모여들었다고 추측된다고 읽을 수밖에 없는 문장인 것이다.

하기와라 씨는 특정한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저자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곡해시키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문필가가 지켜야 할 초보적인 규칙에 반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용도 목사와 황국주 목사는 함께 활동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민경배 저 《한국기독교사(韓國キリスト敎史)》 일본기독교단출판국, 132~136 쪽, 동저 《한국기독교회사(韓國キリスト敎會史)》 신교출판사 <新敎出版社>, 342 쪽), 김경래 씨는 이 목사와 황 목사가 함께 활동했던 것처럼 썼으며 김 씨의 저술 자체의 신빙성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하는 하기와라 씨의 저작(著作)도 '피가름교에 대한 비판을 서두른 탓에 김백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문필가가 지켜야 할 초보적인 규칙에 반한 부분이 적지 않다' 같은 것일 뿐이다.

덧붙여서, 하기와라 씨는, 통일교회에 “피가름”이 있었던 것의 방증(傍證)으로서 장애삼이라는 기독교 여성의 증언을 들고 있는데(69 쪽), 이것도 의문이 있는 김경래 씨의 저서로부터의 인용이다. 게다가 그 증언의 사용법이 김 씨 사이트에도 하기와라 씨 사이트에도 문제가 있어, 이중 삼중의 의문이 되고 있다.

장 여사는 목사 부인이었다고 하지만, 김경래 씨의 《원리운동의 비사》에 의하면 장 여사는 1957년 3월 18일자 《세계일보》(注, 현재의 《세계일보》와 다른 신문)에 자신의 죄의 고백을 게재했다. 그 중 장 여사는 자신이 목사 부인이면서 소위 “피가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백문 속에서 장 여사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당시 교세를 확대하고 많은 비판도 받고 있던 박태선 목사(집단)이다. 문 선생에 대해서는 풍문에 근거한 간접적 비판만 전개한 것이다.

장 여사는 직접적으로는 박태선 목사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을 하기와라 씨는 통일교회와의 문제였던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래 씨에 의하면 그것은 장 여사의 남편이 경영하는 고아원에 대한 기부문제였다고 한다 (《원리운동의 비사》 28~38 쪽).

김경래 씨는 이 부분의 서두에서 장 여사가 통일교회의 이태운 목사와 영체를 교환(注, 피가름)한 것을 장 여사의 남편인 백영기 목사가 들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만약 이 이태운 목사가 통일교의 인물이었다면 백 목사는 통일교회와 싸울 것인데, 그 뒷 문장에 따르면 백 목사가 박태선 목사와 이해관계가 대립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장 여사와 영체를 교환했다고 하는 이태운 목사는 박태선 목사 측의 인물이라면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김경래 씨의 기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덧붙여서, 목사 부인의 “피가름” 고백의 관해서 모리야마 사토시 목사 저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이단》은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문 선생과 목사 부인이 “피가름”을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 운동이 문제화된 것은, 문 씨가 어느 목사 부인과 피가름 행위 중에 남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목사의 입장상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불문에 부쳤지만, 그 부인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공식석상에서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세론(世論)의 빈축을 사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14 쪽)라고 썼습니다.

이 정보의 내용으로 보아, 장 여사의 고백이 다른 풍문과 섞여 형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모리야마 목사는 이미 문 선생과의 사이에서 “피가름”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고, 풍문이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가운데 “사실처럼 변모(變貌)를 이룬다”는 무서움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재차 검증해 보면 하기와라 씨가 증거로 든 것은 모두 증거가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하기와라 씨의 논술의 모든 것이 “날조”라고 의심되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⑥ 하기와라 씨의 놀랄 만한 “사실의 날조”

하기와라 씨의 저서에는 한층 더 놀라운 “사실의 날조”가 있다. 실은 하기와라 씨는 문 선생이 이용도 목사로부터 직접 “피가름”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쓰고 있지만, 이용도 목사는 문 선생이 고향 정주에 계셨던 13 세 때에 이미 객사를 했고, 둘이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와라 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문은 혼음 · 피가름이라는 추악한 교리와 그 실기(實技)를 배워 눈을 떴다. ……1946 년 6 월 6 일, 또 “신의 계시”로 문은 북한의 평양으로 간다. 평양은 당시 혼음 · 피가름의 본거지였고, 이용도와 황국주라는 이 길에서 알려진 “교주”들이 있었다’ (52 쪽)

‘이 이용도의 집회에서는 “범성욕주의적(汎性慾主義的)인 원리를 집회 때마다 은밀하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10 대 중반 무렵의 문선명의 경력을 통일협회(통일교회)는 숨기고 있어서 안개에 싸여 있다’ (55 쪽)

‘10 대 중반인 문은 이용도가 설파한 “사랑의 강론”에 완전히 도취해 버려, 처음으로 듣는 미지의 세계에 깜짝 놀라 이상한 흥미를 느낀 것이다. 그리고 학교 공부도 제쳐 놓고 이 교리에 빠졌다’ (56 쪽)

‘통일협회의 공식 문헌에 의하면 10 대 무렵의 문선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학교에 다니던 것과 16 세 때의 하나님의 계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무렵에 피가름교의 교주인 이용도 곁에 다니고 있던 것 등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57 쪽)

하기와라 씨는 마치 문 선생이 이용도 목사와 직접 만나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쓰고 있다. 여기서 하기와라 씨는 “완전한 창작”을 하고, 이미 죽은 이용도 목사가 살아

있는 것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기와라 씨의 저작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강하게 의심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注) 문 선생이 서울에 갔던 것은 1938 년 봄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과에 입학했을 때이고, 만 18 세였다. 그런데 하기와라 씨는 54 쪽에서 1934 년 봄에 서울의 오산고등보통학교에 편입했다고 쓰고 있다. 이것도 분명한 실수이고, 문 선생이 1934 년에 편입한 것은 정주에 있는 사립 오산보통학교인데, 이런 잘못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다. 어쨌든 이때 이미 이용도 목사는 사망한 뒤였다.

하기와라 씨는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의 전 기자이다. 아무리 《아카하타》의 전 기자라도 “사실을 날조”한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저서가 출판된 1980 년 무렵은 일본공산당이 연일 《아카하타》에서 통일교회를 비방, 중상모략을 하고 있던 시기이다.

통일교회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던 하기와라 씨는 그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처음부터 결론 짓고” “피가름”의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증거가 일절 없고, 단지 악의(惡意)에서 쓰여진 “허위의 내용”의 악본(惡本)을 이용한 탈퇴 설득으로 가정연합 신자를 탈퇴시켜 온 사실이 매우 유감이다.

(5) 반대파에 이용당해서 쓴 박정화 저 《6 마리아의 비극》의 진상

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대한 “피가름”의 중상모략은 1950 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탁명환 씨가 일본의 모 방송국의 와이드 쇼에서 ‘지금까지 실제로는 증거가 없었다’ (1993 년 10 월 27 일)라고 자백한 것처럼,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파가 계속해서 말해 온 “허위”이다.

가정연합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고 열망하고 있던 때에, 문제의 서 박정화 씨의 《6 마리아의 비극(六マリアの悲劇)》(고유출판 <恒友出版>, 1993 년 11 월 4 일간)이 등장한 것이다.

박정화 씨는 그 후, 회개하고 《6 마리아의 비극》에서 쓴 문 선생의 섹스 스캔들은 모두 “조작했다”고 진실을 고백하는 책 《나는 배신자(私は裏切り者)》(세카이넷포사 <世界日報社>, 1995 년 11 월 1 일간)를 출판했다.

그렇다면 저자인 박정화 씨가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문제의 책 《6 마리아의 비극》은 어떻게 출판되게 된 것인가? 그 경위에 대해서 박정화 씨 스스로가 《나는 배신자》의 ‘들어가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문이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당시(1993 년)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열린 3 만쌍 국제합동결혼식 이후 통일교회에 많은 관심이 모여 있었다. 거기에 교회의 초창기를 선생님과 함께 걸은 남자가 “진정한 사탄은 문선명이다”라고 말하고, 없는 선생의 “섹스 스캔들”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 큰 사건이었다. 통일교회 비판의 재료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반 통일교회

저널리스트가 묵묵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다.

나는 금방 “통일교회 공격”에 편승, 상승한 주간지나 텔레비전, 와이드 쇼의 총아(寵兒)가 되고 대접을 받았다. 왜 대은(大恩) 있는 선생님을 언론에 팔려는 신의(信義)에 반한 일을 행한 것인가? 그것은 선생님에 대한 증오, 억제할 수 없는 사분(私憤)을 위해서이다. 나는 《6 마리아의 비극》을 선생님을 공격하는 각오로 썼다. 선생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생명이 끊기고 통일교회를 부수고 나도 죽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6 마리아”까지 조작한 것이다.

옛날부터 종교 지도자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섹스 스캔들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거룩한 것을 진흙투성이로 철저히 부수기 위해서는 가장 대극(對極)적인 섹스 스캔들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그건 모두가 아는 일이고, 나도 그 비열한 수단에 손을 물들였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함께”라고까지 맹세한 남자와 남자의 약속을 스스로 배반할 정도의 증오가 생긴 것은 왜일까? 그 적나라한 고백이 이 책의 하나의 테마이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는 꿈에서 문 선생님이 “재림 메시아”라고 가르쳐주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을 체험해 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재림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이상한 것이다. 아무리 꿈에서 계시를 받고 체험해도, 어지럽게 변하는 현실 생활이 점점 자신 중심이 되어 가면, 거기에 따라 자신도 잃어 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공적으로 사는 선생님까지도 자기 중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된다. 통일교회의 교세가 발전해 나가면서 우수한 인재가 교회에 들어온다. 섭리를 진행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

그럴 때, 나는 무언가 자신이 소외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사랑의 감소감에 사로잡혀, 외로움의 연못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좀처럼 되돌릴 수 없다.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도 될 수 없다. 단지 외로움만이 계속해서 온다. 자기밖에 의식할 수 없고, 그런 세계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때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가 속삭인다. 당신이 맞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가 나쁘다. 그런 상대는 쓰러뜨려야 한다. 강렬한 자기 정당화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증오.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적혀 있지만, 그런 이상하고 냉정한 마음이야말로 사탄의 속삭임일지도 모른다. 이것에 얽매이면 점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너를 배신한 것은 문 선생님이야. 너는 선생님에게 속은 것이다. 선생님은 친인척을 가까이 두고 선생님을 위해 고생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버렸다. 그 증거로 너도 쫓겨난 것이 아닐까? 미워해라! 억울해해라! 복수해라! 그를 쓰러 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라….

이런 때에 일본의 출판사로부터 “먹음직스러운” 출판 이야기가 들어왔다. 돈이 없었던 당시의 나에게서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박 선생님의 책이라면 20 만부는 팔 수 있어요”라고. <정가 1500 엔의 인세 10%, 일부당 150 엔으로, 20 만부라면

3000 만엔(한국 원으로 약 2억 1000 만 원)이 손에 들어오는 계산이 된다>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터무니없는 책을 냈다’ (2~5 쪽)

박정화 씨는 가정연합(구 통일교회)의 초창기를 걸은 몇 안 되는 멤버 중 한 명이다. 게다가 흥남의 덕리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문 선생과 만난 고참 신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입교해 온 멤버가 자신보다 우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외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이윽고 그 외로움이 증오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그런 증오에 빠진 박정화 씨는 확실히 “악마가 씌었다”는 것처럼 문 선생님을 추락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박정화 씨가 문 선생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반대파 사람들이 박정화 씨를 그냥 둘 리가 없다.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온 것처럼 박정화 씨에게 접근해, 매력적인 출판 이야기를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렇게 박정화 씨는 가정연합 반대파의 저널리스트 및 기독교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 센세이션하게 언론에서도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출판된 것이 《6 마리아의 비극》(고유출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박정화 씨는 《6 마리아의 비극》의 내용이 “문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부터 지어낸 조작 이야기이고, 진실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약 2 년 후인 1995 년 11 월 1 일, 《나는 배신자》(세카이닛포샤 <世界日報社>)를 출판한 것이다. 그렇게 된 경위를 박정화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도 장문이지만 이하 인용한다.

‘《6 마리아의 비극》을 출판한 뒤 나는 책의 판매 캠페인을 위해 일본 전국의 반통일 교회 그룹의 집회에 얼굴을 내밀고 책의 PR 을 하고 다녔다. 캠페인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기대는 부풀었다. 그러나 의욕과는 반대로 책은 그다지 팔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안병일 씨로부터 인천 자택에 전화가 왔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부담없이 OK 를 했다. 인천에서 전철로 서울에 와서 약속한 장소인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내 책의 출판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때리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을 한층 더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공표하려고 하고 있었다. 마침 일본의 반 통일교회 그룹으로부터 다시 전국 순회 강연의 의뢰를 받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다.

“박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에게, 나는 “아—”라고 모호한 대답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님을 배반한 행위를 한 이유를 하나하나 말했다.

“서진(棲鎭)광산으로 쫓겨나고 아무런 원조도 없었다”는 것.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조직이 완성되고 있어서 이제 자신의 위치가 없었다”는 것.

“나중에 온 자에게 ‘네, 네’ 라고 머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게다가 “댄버리로 7 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것.

“일화의 김원필 사장에게 20 회나 전화했지만 대답도 오지 않았다”는 것도 덧붙였다.

자신의 주장을 하고 난 후, 교회를 떠난 뒤에 반 교회 그룹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욕설도 큰 소리로 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2 시간 동안 묵묵히 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편안 해졌다. 안 씨는 그 후 문제를 하나씩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와는 김덕진 씨 건으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다. 마음 속에서 통일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한때 품은 생각이 되살아났다. 책의 출판 전에 그를 만났으면 이런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지도 라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다.

그날은 그걸로 헤어지고, 그 후 그와 2, 3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본 형제들이 (박정화) 선생님의 책때문에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고 속삭였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소외한 주제에. 일본의 형제가 괴로워하는 것은 (문선명) 선생님에 대한 복수인 것이다. 썸통이다”라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어느 날, 안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또 만나고 싶다고 했다. 만나보니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박선생님과 함께 일본에서 책을 출판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관리와 손을 잡고 박선생님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2, 3 백만부를 한국에 뿌려 통일 교회를 괴멸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그것을 그만 두게끔 해 줄 테니 2, 3 백억원을 자신들에게 지불하라고 협박해오고 있다”

놀란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고 “자신은 정부 관계자를 통해 김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지 물었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갈로 그들을 감옥에 넣는다고 했다고 한다”

나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라웠다.

“박선생은 그 일당에 가담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나는 (문선명) 선생님을 추락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분풀이다. 그런데 동료들에게 이용당하고 통일교회를 공갈하는 돈벌이 도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의분과 낙담이 교차했다. 하지만 안 씨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인간이란 불가사의한 것이다. 욕을 받으면 “뭐냐!”라고 맞대응하는 힘이 나오지만, 잘못에 대해 꾸지람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 뭔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반성의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안 씨를 다시 만났다.

“일본에서 반대파가 선생님의 책을 이용해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썸통이다”라는 기분이었지만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듣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다. 조금 불쌍한 느낌이 들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231~234 쪽)

박정화 씨는 “개인적 원한”을 풀려고 하는 동기로 《6 마리아의 비극》을 출판했다. 그런데 그 책을 생각이 모자란 일부 반대파의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본인도 모르는 수면하에서 가정 연합에게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가 싸늘히 식는 것이 박정화 씨가 회개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이다.

아마도 그건 고독한 자신의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반대파로부터의, 이른바 “배신 행위”를 당하고 통일교회에 있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소감” 이상의 소외감이나 공허감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죄책감”이며 안병일 씨의 따뜻한 “마음의 케어”가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박정화 씨가 회개한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배신자》 안에 쓰여 있듯이, 안병일 씨로부터 소개받은 일본 세카이닛포샤(世界日報社) 사장인 이시이 미즈하루(石井光治) 씨와 만나 통일운동의 현상을 듣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통일운동을 시찰하는 것으로, 한때 흥남의 수용소에서 문 선생으로부터 들은 것이 현실적으로 된 상황을 보고 깊게 감동한 것을 들 수 있다(참조, 《나는 배신자》 237~248 쪽)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오오타 도모히사(太田朝久)저 《통일교회의 정통성(統一教会の正統性)》을 읽고, 특히 예수님이 걸어온 생애와 문 선생님이 걸어온 생애 노정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기도 했다 (《나는 배신자》 248~251 쪽).

이처럼 박정화 씨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 동료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상처를 받아 안병일 씨의 “마음의 케어”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아사미 사다오 씨는 ‘(박정화 씨가) 일본에서 책을 내면 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빗나가서 다시 통일교회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 (《통일협회 신체 지배의 공포(統一協會ボディコントロールの恐怖)》 가모가와 출판, 37 쪽)라고 말하고 잘라 버렸다. 이것은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6 마리아의 비극》(고유출판)은 가정연합 반대파의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박정화 씨가 “악마가 씌었다”는 것처럼 출판해 버린 조작된 책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출판된 《6 마리아의 비극》이 반대파의 책략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에서 1996년 3월 1일자로 《야록 통일교회사(野録統一教會史)》(큰샘출판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야록 통일교회사》의 출판은 박정화 씨의 본의가 아니었다. 회개하고 가정연합으로 다시 돌아온 박정화 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반대파가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야록 통일교회사》에 게재되고 있는 박정화 씨의 ‘머리말’ 부분은 《6 마리아의 비극》(일본어판)의 ‘꼬리말’을 일부 삭제해 전제한 것으로, 저작 일자도

1993년 10월이라고 옛것 그대로 되어 있다. 이는 저자의 의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출판된 사실을 알았을 때 박정화 씨는 “그 출판은 본인의 허가 없이 내놓은 것으로 불법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만 83세라는 고령이었던 박정화 씨는 법적 투쟁 중에 끝맺음을 못하고 1997년 3월 26일 사망했다. 그 2개월 전인 1월에, 그가 계속 염원해 온 가정연합의 ‘축복 결혼식’을 받았다(《패밀리(ファミリー)》 1997년 5월호, 4쪽).

그런데 반대파는 그 경위를 모르는 가정연합 신자에게 《나는 배신자》가 1995년 11월 1일에 세카이닛포샤(世界日報社)에서 나온 후인 1996년 3월 1일에 한국어 번역인 《야록 통일교회사》가 나온 것이기에, “이 한국어의 출판이 새로운 사실이고 《나는 배신자》는 가정연합 측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출판한 것이다”고 탈퇴 설득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반대파의 비열함을 나타낸다. 《나는 배신자》의 출판에 즈음해 박정화 씨 자신이 일본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서적의 내용이 진실이다”고 말한 증거 영상도 있다.

이러한 출판 사정을 숨기는 방법은 반대파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다. 예를 들면 1997년 8월 20일자로 출판된 아사미 사다오 감수 《통일협회 신체 지배의 공포》(카모가와 출판)에서도 이런 출판 경위를 무시하고, 마치 《6 마리아의 비극》에 진실이 쓰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고, 문 선생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다.

아사미 사다오 씨는 《6 마리아의 비극》에 대해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저자 박정화 씨가 통일협회 창립 전부터 문선명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며, 문선명의 “피가름” (“복귀”라고 하는)의 난행(亂行)의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점에 있다. 저자는 자신도 문선명의 지시로 피가름을 실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책에서 밝혀진 것은 많이 있다……’ (《통일협회 신체 지배의 공포》 14쪽)고 기술되어 있지만, 저자인 박정화 씨 본인이 1995년 11월 1일에 《나는 배신자》를 출판해 《6 마리아의 비극》의 내용은 “지어낸 조작 이야기”라고 고백하고 이미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8월 20일에 《통일협회 신체 지배의 공포》를 출판해 전술과 같이 말하는 것은 사실을 무시한 실로 악의적(惡意的)인 수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대파의 수법이다. 바로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문 선생과 가정연합은 오랫동안 증거도 없는데 기독교 관계자와 반대파 그룹이 음행의 교주 “피가름교”라고 계속 말해 오고 있다. 그건 초대 기독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득한 초창기 때부터 유대교 측이 ‘예수를 사생아, 간부(姦婦)의 아들로 심한 비판을 하고 있어 “성모” 마리아와 로마 병사와의 소문도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2세기 철학자 켈수스는 예수님은 목수의 약혼자 마리아와 로마 군인 판테라 사이에서 생긴 사생아라고 해서 심하게 기독교를 공격했다’ (도이 마사오키 <土井正興> 저 《예수 그리스도(イエス・キリスト)》 산이치신쇼

〈三一新書〉, 10 쪽)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오리케네스가 AD248 년경에 썼다고 하는 《켈수스에 대한 반론(反論)》에서도 계속해서 변명을 해야 했을 정도다.

기독교도 근친상간을 하고 망측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난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가정연합에 대한 “피가름”의 증상모략에서도 느껴질 수밖에 없다.

二, 반대파에 의한 ‘피가름’ 언설의 “허위”—반대파의 잘못된 ‘통일원리’ 이해

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엉터리투성이인 ‘피가름’ 비판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의 “‘피가름’ 의식”이라는 작은 표제 부분에서 가정연합에는 ‘피가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정연합에는 “피가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엉터리투성이인 설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정연합에서는 ‘메시아가 신도인 모든 여자와 성행위를 해야만 한다. ……문선명이 신도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교리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피가름 의식”이라고 한다’ (236 쪽) 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가정연합에는 ‘피가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타락이란 ‘(타락) 사탄이 해와와 성행위⇒잘못된 결혼과 가족⇒죄의 혈통이 전인류에게’ (235 쪽)라고 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복귀) 메시아가 신도인 여자와 성행위⇒올바른 결혼과 가족⇒하나님의 왕국을 건설’(236 쪽)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의 왜곡된 ‘통일원리’ 해석일 뿐이다.

이하,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저서에서 인용한다.

“‘피가름’ 의식

통일교회의 교리에 의해 “피가름”이 중요하다.

《원리강론》 타락론과 거기서부터의 복귀 교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

인류가 타락에서 복귀되기 위해서는

(1) 메시아가 지상에 와서 결혼하고 참부모가 된다.

(2) 참부모가 사람들의 죄의 혈통을 깨끗이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 의 순서가 필요하다.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죄의 피로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지상에서 결혼하고, 지상의 참부모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면 참부모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죄의 혈통을 깨끗이 없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타락의 사건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와가 타락한 것은 사탄과 성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죄의 피가 해와에게 들어와 아담에게 전해져, 혈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다.

(타락) 사탄이 해와와 성행위 ⇒ 옳지 않은 결혼과 가족 ⇒ 죄의 혈통이 전인류에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신도인 모든 여자와 성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이 정당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죄의 혈통을 벗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할 수 있다.

(복귀) 메시아가 신도인 여자와 성행위 ⇒ 정당한 결혼과 가족 ⇒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

문선명이 신도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교리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피가름 의식”이라고 한다’ (234~236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곡해한 내용을 논하는 것은 《원리강론》에서 논하는 ‘죄’와 ‘타락’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것에서 온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그의 저서 229 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통일원리는) 죄=타락, 이라고 한다. 기독교(일신교)에서는 죄=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정의된다. 그것은 타락이 아니다. 통일교회에서 죄는 타락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탄과의 관계로 죄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통일원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죄=타락’이라고 말하지만 《원리강론》에서는 ‘죄’와 ‘타락’을 명확히 구별해서 논하고 있다.

‘죄’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죄(罪)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기준(相對基準)을 조성하여 수수작용(授受作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天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98 쪽) 고 정의하고 있다. 즉 죄란 ‘천법(天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정의되고 있다.

‘타락’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인간시조가 천사장(天使長)과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맺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모두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마 3:7, 마 23:32, 요 8:44). 그리하여 인간 시조는 하나님과 혈통관계가 끊어진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394~395 쪽) 라고 있듯이, 타락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혈연관계가 끊어지고(하나님의 혈통의 상실), “사탄의 혈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신약성서 마태복음 3 장 7 절에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23 장 33 절에는 예수님이 교법사(教法師)를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질책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 장 44 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이(마귀)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성구들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으로부터 사탄의 혈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리강론》은 ‘죄’와 ‘타락’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양자가 같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죄=타락’이라고 해서 동일원리를 곡해해, 양자를 혼동하고 있다. 이 혼동으로부터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영터리투성이인 ‘피가름’ 비판이 생기고 있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원리강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하물며 이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되었는가?

—하시즈메 씨의 잘못된 해석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죄의 피가 해와에게 들어갔다’

문 선생은 인간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사탄의 혈통과 연결되었는가를 해명하고 있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해와가 타락한 것은 사탄과 성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죄의 피가 해와에게 들어와’ 라고 엉뚱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와의 타락 시점에서는 아직 ‘죄의 피가 해와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하시즈메 씨의 자기 멋대로 한 해석에 불과하다.

《원리강론》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그들(천사장 누시엘과 해와)로 하여금 불륜한 영적인 정조관계(貞操關係)를 맺게 하였던 것이다’ (87 쪽). 천사장 누시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타락의 관계는 “육체 관계”가 아니다. 또 이것은 “거짓된 부부 관계”이다.

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사랑에는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관계는 종적 사랑이고 부부 관계는 횡적 관계예요. 종적 사랑은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고, 부부 관계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문선명 선생님의 일본어 말씀집·특별편 1(文鮮明先生の日本語による御言集・特別編1)》 17~18 쪽)

문 선생은 ‘부부 관계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영적 타락에 있어서의 해와와 천사장 누시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거짓된 부부 관계”이고 혈통은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 천사장 누시엘이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고, 천사장은 영적인 존재이며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영적 타락의 시점에서 인관과 혈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인류는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되었는가? 사탄의 혈통이 된 것을 악한 ‘혈통 전환’이라고 한다.

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타락의 책임은 사탄을 중심하고 해와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게 이동되었습니다. 즉 (영적 타락에 의해서) 거짓 생명의 씨를 받은 해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대신 사탄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해와와 하나가 되어 아담을 낳은 입장으로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해와는 천사장과 아담을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입장에 세워 타락하였으므로 (천일국경전 《평화경》 908 쪽)

여기서 문 선생이 ‘**해와는 천사장과 아담을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입장에 세워 타락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타락 해와와 아담과의 육적 타락(=육체 관계)에 의해 천사장과 아담이 ‘**아버지와 아들**’ (=거짓된 부자 관계)의 입장이 되고, “거짓 혈통”이 연결된 것이다. 육적 타락은 거짓된 관계라고 해도 “거짓된 부자 관계”라는 **종적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써 “거짓 혈통”이 연결된 것이다. 즉 ‘**부자 관계는 종적 사랑이고……종적 사랑은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거짓 아버지(=사탄)와 혈통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 8:44) 라고 말한 것이다. 이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편으로의 혈통 전환”이 되고 인간시조는 사탄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타락 해와가 천사장과 아담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입장**’으로 세워서 타락했을 때, 거짓된 ‘**종적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아담은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되었다. 이 거짓된 ‘**종적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인간시조는 하나님의 혈통에서 사탄의 혈통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악한 ‘**혈통 전환**’인 것이다.

③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문 선생은 《平和神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17 쪽)

전술한 바와 같이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타락 해와가 아담을 “사탄의 아들”의 위치로 거둬 낳아 주었을 때 그녀는 “거짓 어머니”의 역할을 다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타락에 있어서 타락 해와와 타락 아담의 관계는 “거짓된 모자(母子) 관계”이다. 해와는 악한 ‘모자 협조’를 했다는 것이다. 타락 해와도 또한 이때 거짓 모자 관계라는 “**종적 사랑의 관계**”로 인해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할 때 여성이 “모자의 역할”을 다하고 남성을 거둬 낳아 주어야 한다.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은 어디까지나 해와와 아담의 육체 관계 즉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편으로 혈통전환은 어디까지나 **축복을 받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타락할 때 해와와 아담(부부 관계)의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注, 영적 타락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편으로 돌아갈 때도 축복을 받은 여성과 남성(부부 관계)의 사이에서 만이 행해지는 ‘삼일행사’를 통해서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말하는 ‘**메시아가 신도인 모든 여자와**

성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피가름' 이론은 가정연합 일련의 축복 행사에 있어서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불어 복귀섭리에 있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하나님편에 서 있는 아들에게 선한 '모자 협조' 해야 하는 것이 복귀섭리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타락할 때에 해와가 악한 '모자 협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문 선생이 '사랑 생명 혈통'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85~89 쪽)이라는 2 단계의 타락 행위로 사탄의 "거짓 사랑"을 중심으로 해와가 "거짓 생명"이 되어서 그 타락 해와가 **육적 타락으로** 아담을 사탄의 아들로 거듭 낳아 줌으로써 "거짓 혈통"이 연결된 것이다. 즉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다. 문 선생이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 생명 ·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관계라도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열매"로서 타락인간은 육적 타락으로 이하여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된 것이다.

영적 타락은 어디까지나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의 "영적 성관계"이지 육체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육적 타락의 경우, 그것은 해와와 아담의 "육체 관계"이다.

이 인간시조 해와와 아담의 육체 관계에서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탐감하는 것이 축복받은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육체 관계로 인한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이고, 그것이 '삼일행사'라는 가정연합의 종교적 의식이다.

④ 이론 상 완전히 있을 수 없는 '피가름'

문 선생은 약혼식, 성주식, 결혼식의 일련의 '축복의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여러분이 약혼식을 한 후에는 성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혼식과 성주식, 그리고 결혼식은 대관절 무엇이나? 이것은 어떠한 전례에 따라 행하는 식이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재현시켜 가지고, 그것을 탐감하기 위해 행하는 불가피한 행사인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 666 쪽)

축복결혼식의 일련의 행사(약혼식, 성주식, 결혼식, 축도)는 타락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재현시켜서 반대의 경로로 탐감복귀하는 행사인 것이다. 즉 영적 타락의 토대 위에서 육적 타락에 의해 일어난 "사탄편으로 혈통전환"을 반대의 경로로 청산한다는 것이다.

일련의 행사로 먼저 약혼식과 성주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은 원죄를 청산하는 식이라고 해서, 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성주식)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벗을 수 없고, 원죄를 벗지 않으면 참자녀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원죄를 벗는 혈통 전환, 즉 혈육을 교환하는 식이 성주식입니다**’ (동, 667 쪽)

‘**성주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피를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뽑아 버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동, 667 쪽)

‘약혼식과 성주식은 사탄세계에서 태어난 인간이 참부모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조건을 세우는 탕감의식인 것입니다. **여성이 먼저 타락하였으므로, 여성이 먼저 복귀되어 남성을 다시 낳도록 하는 과정을 내적으로 통과하는 식**이 성주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40 일 이후에 그것을 외적으로 통과하는 식**(삼일행사)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탕감의식인 것입니다’ (동, 678 쪽)

이상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성주식은 “원죄 청산”의 의식이다. 원죄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으로 인한 아담과 해와의 “**천법 위반**”에 대한 “**죄의 청산**”이기 때문에 참부모와 축복을 받을 여성(=타락 해와)과 남성(=천사장의 입장)의 3 자간에서 “천법 위반”의 죄를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 성주식에 의한 원죄 청산이다.

그러나 “**타락의 문제**”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는 육적 타락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성주식을 통하여 3 자간에서 원죄 청산을 한 토대 위에서 육적 타락(=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즉 ‘**여성이 먼저 타락하였으므로, 여성이 먼저 복귀되어 남성을 다시 낳도록 하는**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의) **과정을 내적으로 통과하는 식**’이 성주식이라고도 말하신 것이다. 이 영적 타락으로 인한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영적 성관계”이지 육체 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영적 타락의 시점에서는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은 육적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혈통’을 가지고 오신 참부모에 의한 “약혼식” “성주식” “결혼식” “축도”로 인하여 참사랑, 참생명이 전수되고 참 혈통이 “내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일련의 성주식을 중심으로 한 의식이다. 이것이 혈통 전환을 ‘**내적으로 통과하는 식**’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탄의 “거짓 사랑” “거짓 생명”을 이어받은 ‘영적 타락’을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편의 “참사랑” “참생명”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교주(메시아)와 육체 관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약혼식, 성주식, 결혼식, 축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 관계가 불필요한 것이다.

즉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은 **타락 해와와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적 타락의 문제로** 인하여 아담이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 관계(=부부 관계)를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거짓 사랑” “거짓 생명”을 갖고 있던, 축복을 받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축복을 받은 남성을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편의 혈통으로 거듭 낳아 주는 ‘혈통 전환’은 ‘**결혼하여 40 일**

이후에 그것을 외적으로 통과하는 식 즉 삼일행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은 축복을 받는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을 일어난 ‘육적 타락’을 원래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메시아)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성적 관계, 소위 반대파가 말하는 ‘피가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⑤ 문 선생의 발언: ‘6 마리아’ ‘피가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 선생은 소위 ‘6 마리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이놈의 간나들, 6 마리아니 뭇이니 하는 박정화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소문난 것을 마음대로 꾸며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말씀선집 306-241, 1998년 9월 23일)

‘통일교회 선생님의 아들딸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통일교회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친구를 만들고 그와 같은 사람(전신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요. 세상에! 나도 모르는 6 마리아 얘기, 선생님이 여자들을 중심삼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얘기, 별의별 얘기를 상상해 가지고 한 거예요’ (말씀선집 465-219, 2004년 8월 21일)

‘최원복이 통일교회에 있어서 여자를 대표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요번에 재판사건(청춘을 돌려달라 재판 <青春を返せ裁判>) 때문에 최선생 이름이 아주 뭉뚱뚱에 빠진 식이 됐다구요. 문사장까지 (성관계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문사장! 「예」 최선생이 전부 다 잘못 했다고 생각했지? 솔직히 얘기해 봐. 「확정적으로 최선생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확인서를 써준 데 대해서요. 그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써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답변만 해, 다 아는 거야. 「예, 의심했습니다.」 의심보다도 그렇게 알았잖느냐 말이야. 나보고도 몇 번씩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야. (말씀선집 170-302~303, 1987년 12월 4일)

문 선생은 반대파가 말하는 ‘문선명과 최원복과의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사생아까지 있다’ 라는 풍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셨다.

또 축복가정의 “핵심 멤버”인 3 가정의 부인에 대해서도 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사길자 씨도 《원리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리강론》이예요. 실체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예요. ……주인이 되려고 사길자 씨도 생각하는 것이지요? “본체”인 참어머니 이상의 위치에 서자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머님과 같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들 딸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은 참부모의 씨를 받고 일체권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이예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거예요’ (《패밀리(ファミリー)》 2009년 1월호, 48 쪽)

문 선생은 3 가정인 사길자 씨에 대해 ‘참부모의 씨를 받고 일체권’이 된 것이 없는 사람이 ‘참어머니 이상의 위치에 서자’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셨다. 그리고 ‘본연의 아들 딸을 낳을 수 있어요?’ 라고도 말하셨다.

이와 같이 문 선생은 사길자 씨가 문 선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셨다. 전술했지만 전 신자이고 36 가정인 유효민 씨도 ‘피가름’이 없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반대파가 오랫동안 계속 말해 온 ‘최초의 3 쌍과 33 쌍은 실제로 문선명의 피가름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와사키 교코 저 《통일협회의 맨얼굴(統一協會の素顔)》 235 쪽)는 비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일 귀한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악마의 행각입니다.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인데 이것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것은 음란입니다. ……세계적으로 음란 바람에 휩쓸려 가는 인류의 군상이 될 때는 철퇴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교단이 그렇게 될 때는 교단이 망해 떨어지고, 나라가 그렇게 될 때는 나라가 망해 떨어지고, 역사가 그렇게 잘못되면 그 역사의 방향이 다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천일국경전 《평화경》 444~445 쪽)

그리고 한학자 총재도 문 선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기독교와 제 남편(문선명 선생)이 하나되었더라면 지상세계는 물론이요, 천상세계 까지도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끝나는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이들 종교지도자는 저의 남편과 하나되기는커녕……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은 채 맹목적으로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인격을 말살하고자 그들은 제 남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성적 탈선과 탐욕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천일국경전 《평화경》 962 쪽)

또 문 선생은 16만 방한(訪韓)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지금도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있는 여성도 있어요. “축복을 받도록”이라고 말해도 축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을 사모한 자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라고 해서 큰일이예요. 만약 선생님이 키스나 악수나 해주면 큰일이 나요. 이것은 이미 틀림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을 통과하면서, 여성에 걸리지 않고 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 선생님이 키스라도 해주었으면 큰일나요. 악수이라도 해 주었으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떤 것이라도 걸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어머님으로서 서기까지는 상당한 마음의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통일교회라는 존재도 없어져버려요. 바르게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컨트롤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문선명 선생님의 일본어 말뚝집·특별편 1(文鮮明先生の日本語による御言集・特別編1)》 287~288 쪽)

이상과 같이 ‘6 마리아’ 나 ‘피가름’이라는 반대파에 의한 증상모략과 달리, 문 선생은 경솔하게 여성의 손조차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셨다. 이들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문 선생만큼 “순결”을 중요시하고 “정조”를 생명시해 오신 분이 없다.

또한 문 선생은 ‘천법 3 개조’라는 가장 중요한 철칙을 들고 있다.

‘이제부터 지켜야 할 철칙이 뭐냐 하면, 무슨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핏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인사조치를 잘못해서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번은 뭐냐? 공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금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말뚝선집 342-298~299, 《패밀리(ファミリー)》 2001 년 3 월호, 44~45 쪽)

어디까지나,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문 선생이다. 사실, 문 선생은 축복가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원리에서 하면, **한 명의 남자(메시아)가 두 명의 여자하고 사귈 수는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여성의) 남편을, 아담을 접붙이고, 낱땀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완성된 남편(참 아담)의 입장이기 때문에 동생의 입장, 제 2 번째의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의 남편들, 천사장(축복을 받는 남성)을 데리고 오고, 옛날 16 세 때에 타락한, 그 타락 전의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성된 아담의 승리의 실체를 접붙이는 거예요’ (《축복(祝福)》 1994 년 춘계호, 26 쪽, 1994 년 1 월 2 일)

‘생식기가 왜 생겨났느냐 이거예요. 사랑 때문에, 생명 때문에, 혈통 때문에, 양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곳을 통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혈통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남자의 생식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직 주인은 한 여자입니다. **둘이 아니예요. 절대 주인은 하나입니다.** 이제 알았대구요. 틀림없는 결론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주인은 여자이고, 여자 생식기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아니고,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다. (웃음) 확실히 알겠어요? 「예.」 **이것은 본연의 창조 공식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누구와 더불어 정착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와 더불어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예요, 아내예요? 여자가 아니라, 아내다! (웃음) 영원히 아내뿐이라구요’ (말뚝선집 281-189~191, 《패밀리(ファミリー)》 1997 년 4 월호, 10~11 쪽, 1997 년 2 월 13 일)

‘남자 생식기의 주인은 여자이고, 여자 생식기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아니고,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본연의 창조 공식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가르침은 《원리강론》에서도 중요한 교훈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독실한 신앙자들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 직전의 심령기준(心靈基準)까지 성장하여 영통하게 되면, 아담과 해와가 넘지 못하고 타락한 것과 같은 시험으로 인하여 타락되기 쉬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원리를 모르는 한 이러한 입장을 극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인(道人)들이 이 시험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오랜동안 수도(修道)한 공적을 일조일석(一朝一夕)에 허사로 돌려보내곤 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96 쪽)

이와 같이 남녀 문제는 ‘공적을 일조일석(一朝一夕)에 허사로 돌려보내곤’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이다. 가정연합은 어디까지나 “순결” “정조”를 지키자는 것이 가르침의 진수(眞髓)이다.

⑥ ‘삼일행사’에 있어서 ‘여성 상위’가 의미하는 것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60 년에 한학자와 결혼하고나서 합동결혼식이 시작했다. 가장 초기에는 첫날밤에 앞서 문선명이 신부 하나하나와 성교했다고 한다. 그후 결혼식에서 마시는 포도주에 문선명의 정액을 섞게 했다고도 한다. 나중에는 그것(정액을 섞게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축복이 되었다. 합동결혼식 후의 첫날밤은 여성 상위 등 자세히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피를 맑게 하는 의례가 통일교회의 교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정한 것이다’ (236~237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첫날밤에 앞서 문선명이 신부 하나하나와 성교했다고 한다’ 라는 풍문에 대해서는 이미 반론했다. 문 선생이 신부 하나하나와 성교 (소위 ‘피가름’)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

다음으로 ‘결혼식에서 마시는 포도주에 문선명의 정액을 섞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김명희 씨(남성 전 신자)에게의 “유죄 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패밀리(ファミリー)》 1993 년 7 월호에 ‘김명희 씨의 언행은 문 선생이 36 가정 부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최원복 선생과 피가름을 했다거나, 성주에 정액을 집어넣다거나, 다수의 이화여대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너무나 문 선생과 통일교회를 비방하는 영터리투성이의 일이었기 때문에……서울형사지방법원은 1 심, 2 심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동씨가 주장한 이들 항목에 대해 허위를 기재하거나 적시했다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다투고 김명희 씨는 “ 명예훼손 ” 등의 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었습니다’ (96 쪽)고 있고, ‘결혼식에서 마시는 포도주에 문선명의 정액을 섞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

그런데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합동결혼식 후의 첫날밤은 여성 상위 등 자세히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부부 사이에서만 행하는 ‘혈통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의식(삼일행사)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은 해와와 아담과의 관계 즉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원래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은 축복을 받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타락할 때 해와와 아담(부부 관계)의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편으로 혈통전환”이 일어났기(결코 영적 타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이 될 때도 축복을 받은 여성과 남성(부부 관계) 사이에서 행하는 ‘삼일행사’로 인하여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 의식이므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순서를 틀리게 하면 의식 자체가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말하는 ‘메시아가 신도인 모든 여자와 성행위를 해야만 한다’라는 소위 ‘피가름’의 궤변은 일련의 축복 행사에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 즉 ‘피가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할 때 “사탄편으로 혈통 전환”은 타락 해와가 아담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탄의 아들이자 거둬서 낳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삼일행사의 첫째 날인 ‘여성 상위’가 의미하는 바이다. 즉 타락 해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아담을 “사탄편 아들”으로 낳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원래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편으로 혈통 전환”도 여성이 남성을 거둬서 낳아주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삼일행사의 둘째 날인 ‘여성 상위’가 의미하는 바이다. 즉 여성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남성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거둬서 낳아 준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삼일행사의 셋째 날에는 ‘남성 상위’로 부부 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복귀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혈통권으로 복귀되고 본연의 부부로서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가정연합의 가르침은 순결을 중요시하는 가르침이다.

三,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헛된 교리 비판—‘통일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언설

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핀트가 빛나간 《원리강론》 비판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일교회의 교리는 유교(儒敎)나 도교(道敎)의 생각과 꼭 닮은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도저히 기독교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통일교회는 그 본질을 기독교와 유교·도교와의 하이브리드(섞은 것)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원리강론》의 독해는 복잡한 것이 된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만을 비추어 읽거나,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더라도 핀트가 빛나간다’ (213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원리강론》 해독에 대해서 ‘그것을 기독교 교리만을 비추어 읽거나,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더라도 핀트가 빛나간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하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독교와 대비(對比)하며 《원리강론》 비판을 전개하고 있기에, 그의 논술이 바로 ‘핀트가 빛나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② 소위 ‘실낙원’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리강론》은 이 성서 창세기의 기술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다음처럼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 a. 해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대천사 루시퍼(누시엘)이었다.
- b.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뱀과 해와가 더러운 성(性)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 c. 아담도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해와와 더러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 d.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인류는 더러운 혈통에 의해 유전하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비유적인 해석은 성서의 텍스트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무리한 “견강부회(牽強附會)”이다’ (226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이렇게 말하고 상기(上記) a~d 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한 “견강부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a 에 대해서 말하면, Wikipedia(위키백과 일본어)의 ‘타천사(墮天使)’의 항목에는 ‘성서 속의 타천사(聖書中の墮天使)’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구약성서》 중, 타천사(악마)로서의 루시퍼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4 장 12~15 이다’ 라고 써져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루시퍼라는 것은 타천사(악마)인 것이고, 이 해석은 옛날부터 해왔던 해석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견강부회’라고 해서 ‘해와를 유혹한 뱀의 정체는 대천사 루시퍼(누시엘)이었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루시퍼(누시엘)는 타천사이고, 악마가 된 천사라고 이해되고 있다.

또 b, c 에 대해서 말하면, 소위 ‘실낙원(失樂園) 이야기’를 성(性)적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던 해석이다. 가톨릭교회(천주교회)의 A·로텔(A·ローテル)씨는 ‘금단의 나무=옳지 않은 연애’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시조에는 오직 한 그루의 금단의 나무가 심어졌을 뿐이었는데, 우리 현대 인간의 주의를 보시다시피 금단의 나무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들의 금단의 나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옛날에 낙원에 있었던 나무와 특별히 꼭 닮은 일종의 나무가 있고, 그것이 강렬한 매력으로 젊은 청소년 남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 금단의 나무란 즉 잘못된 연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A·로텔〈A·ローテル〉 저 《금단의 나무의 열매(禁断の木の実)》 돈·보스코 사〈ドン・ボスコ社〉 5 쪽)

그리고 가톨릭 사제(司祭) Peter Milward(ピーター・ミルワード) 씨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담과 해와의 죄가 반항 이상의 것이라도 두 사람의 죄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폭식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가지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지식”(즉 성교)의 나무 열매를 따먹는 성적 욕망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남자와 여자로서 아담 대 해와라는 명백한 관계가 있다. 둘째, 그들은 알몸이었을 뿐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을 때까지 알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있다. 셋째, 뱀이 해와를 교사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방법은 은근히 성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지혜(旧約聖書の智慧)》 37 쪽)

또한 Elaine Pagels(페이겔스) 저 《아담과 해와와 뱀(アダムとエバと蛇)》(요르단사 <ヨルダン社>)은 바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까지의 시대에 있어서의 ‘낙원 신화’ 해석의 변천에 대해 저술하고, 이 ‘낙원 신화’를 성적으로 해석해 온 것을 말하고 있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건강부회’이라고 해서 ‘b.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뱀과 해와가 더러운 성(性)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c. 아담도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해와와 더러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실낙원 이야기’를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해석인 것이다.

다음으로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d.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인류는 더러운 혈통에 의해 유전하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죄’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것은 아우구스티누스(AD354~430)였는데, 그는 ‘아담의 죄는 인류의 맨 끝까지 미치고 있다. 후손은 성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성은 이중의 의미에서 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이, 이미 죄가 가득히 있고, 죄를 저지르는 경향도 실은 선천적인 약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E·Hordern <W·E·ホーダーン> 저 《현대기독교 신학입문(現代キリスト教神学入門)》 46 쪽) 고 생각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원죄의 유전은 가톨릭교회의 공식 교리가 되었다’ (Elaine Pagels 저 《아담과 해와와 뱀(アダムとエバと蛇)》 279 쪽). 이와 같이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가 저지른 원죄가 유전한다는 생각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해인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a~d 에 대해서, 이것들이 ‘건강부회’라고 비판하지만, 이 비판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서,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적 욕망 그 자체를 원죄의 증거 및 벌과 동일시’ (Elaine Pagels 저 《아담과 해와와 뱀》 237 쪽)하고 해석했는데, 프로테스탄트교회(개신교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와 신학 논쟁을 하는 가운데 성적 해석을 버렸던 것이다. 가톨릭 신학(특히 중세기)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성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결혼생활보다 독신생활을 우위에 둔다’는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와무라 신지(岩村信二) 저 《기독교의 결혼관(キリスト教の結婚観)》 101 쪽).

오늘날에서도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비롯하여 사제(司祭)가 평생 독신을 관철하는 등 성직자의 독신제를 확립하고 있다. 이것은 타락의 문제를 ‘성’과 묶어서 해석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성욕’이라는 생각은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통일원리’는 성육 자체를 원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리강론》에 ‘하나님이 인간 조상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믿음을 위한 계명(誡命)은 언제까지라도 필요한 것이었던가? ……인간이 완성하면 따먹는 것은 **원리적인 것**으로서 허용되도록 창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91 쪽) 라고 있듯이, 자녀 번식을 이루기 위해 성육은 원래 원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 타락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나 결혼관 등을 둘러싸고,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신학 논쟁을 하고 오랫동안 대립 관계에 있었다. 그것은 가톨릭교회가 전통적으로 원죄에 대해 ‘성적 해석’을 하고 성직자의 독신제를 유지해 왔던 것에 비해 개신교 교회에서는 ‘원죄’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 교만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죄를 “이기심”(Selbstsucht)으로 하는 루터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원죄에 대해 ‘심적 해석’을 한다.

‘통일원리’는 자기중심의 동기에 의한 불순종이라는 ‘심적 해석’에 근거하면서 인간시조는 ‘성적 형태’를 통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서는 오늘까지 대립해 온 가톨릭교회 신학과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신학을 화해시키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파는 타락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가정연합 신자를 탈퇴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미 반론을 끝냈다.

‘실낙원(失樂園)을 성(性)적으로 해석한 가톨릭 신학에 대항하고, 이것을 성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있습니다. 창세기 2 장 24 절의 “결혼찬가”와 창세기 3 장의 “실낙원”의 관련성을 놓고, 성서의 기술 순서를 그대로 시간적 경과와 동일시한 루터는, 결혼찬가에 “아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타락(실낙원) 전에 이미 성교하고 있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원인(原人) 아담과 이브(해와)는 그 타락 이전에 이미 성적(性的)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은 두 사람의 정절과 깨끗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했다. 그들은 알몸이었고 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와무라 신지 저 《기독교의 결혼관》 122 쪽)

반대 목사는 이 루터의 성서 해석을 근거로 “아내”라는 말을 주목하고 아담 해와의 타락의 원인이 통일교회가 말하는 것과 같은 “성적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를 “자기 중심” “거만”이라고 보고 심적 해석을 한 루터의 견해를 이용하면서, 통일원리의 “타락론”이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통일교회 신자를 탈퇴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와는 달리 성서의 기술 순서를 그대로 시계열(時系列)로 보지 않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톨릭 성서(불가타 <Vulgata>)를 교정한 교부(敎父) 히에로니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과 해와에 관해서는 타락 이전의 그들은 낙원에서 순결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후에 즉시 결혼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는 (창세기 2 장 24)절이 온다” (Elaine Pagels 저 《아담과 해와와 뱀》 203 쪽)

인간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장 4 절부터 다시 한번 다른 형태의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처럼 성서의 기록 순서를 그대로 시간적 경과와 동일시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실낙원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일원리는 “타락론”에서 루터처럼 “자기중심”의 동기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성적 형태”를 통해 타락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카톨릭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화합시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오타 도모히사 <太田朝久> 저 《깃뻘힌 신교(信教)의 자유(踏みにじられた信教の自由)》 295~297 쪽)

이상과 같이 반대파는 악의(惡意)에 근거한 치우친 비판을 하고 “탈퇴 설득”을 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③ ‘통일원리’는 유교와 도교라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리강론》은 스스로, 세계가 음양(陰陽)으로 되어 있다는 견해가, 역학(易學)과 동일하다는 내막 공개를 하고 있다. 역학은 태극(太極)을 음양이 중화한 “주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태극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것이지, 일신교의 것처럼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자’ (242 쪽)

이와 같이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비판하고 있지만 《원리강론》에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21 쪽) 라고 있듯이 ‘통일원리’는 천지창조를 이룬 유일신(唯一神)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 즉 ‘통일원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신(創造神)”이고 “인격신(人格神)”이다.

덧붙여서 《원리강론》이 ‘우리는 창조원리(創造原理)에 입각하여 동양철학(東洋哲學)의 중심인 역학(易學)의 근본을 알아보기로 하자’ (28 쪽) 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에 의한 ‘창조원리(創造原理)에 입각하여’ 역학을 논평한 것이지, 결코 《원리강론》이 역학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원리강론》은 ‘역학은 다만 음양을 중심하고 존재계를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이 모두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을 밝혔을 뿐 그것이 본래 본성상(本性相)과 본형상(本形狀)에 의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태극이 인격적인 신(神)이시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29 쪽) 라고 논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역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리강론》이 역학에 대해서 말한 것은 ‘통일원리’가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화합 통일시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④ 통일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다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일교회는 기독교의 일파이다. 일단은, 일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212 쪽)

그러나 《원리강론》은 예수님이 구주(救主)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논하고 있다.

‘예수님은 타락인간이 그를 믿어 그와 일체가 됨으로써 그와 같이 완성한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구주(救主)이신 것이다’ (65 쪽)

‘메시아(구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51 쪽)

‘하나님이 타락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편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구주(救主)이신 동시에 심판주(審判主)가 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243 쪽)

이와 같이 《원리강론》은 예수를 구주(救主)라고 말하고 있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말하는 ‘통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는 것은 잘못이다. 얼마나 하시즈메 씨가 《원리강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는가를 이 한가지만 보아도 현저(顯著)한 것이다.

⑤ ‘원리(자연법칙)>하나님’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일신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리’란 무엇이냐? 우주도 세계도 자연도 “원리”에 따른다. 원리는 절대이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원리에 따르느냐, 아니면 원리가 하나님에게 따르느냐? 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통일교회의 교리가 일신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진다’ (239 쪽)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는 동안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240 쪽)

‘세계는 창조되었어도 완성되어 있지 않다. 생성(성장)의 과정에 있다. 성장의 과정은 원리로 인도된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손대지 못하고), 인간의 책임으로 맡겨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244~245 쪽)

‘이 생각 방식이 일신교인지 아니면 유교·도교인지를 말하자면 유교·도교이다. 겉으로만 일신교인 체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리(자연법칙)>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45~246 쪽)

그러나 《원리강론》은 ‘하나님은 원리로써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하여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약하다면 하나님은 원리로써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원리를 더 추구하게 될 것이다’ (90 쪽) 라고 논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 인간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힘’을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원리’에 의해 얽매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즉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말하는 것 같은 ‘원리(자연법칙)>하나님’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것을 《원리강론》이 거듭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시므로 인간 조상의 타락행위(墮落行爲)를 모르셨을 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그들이 타락행위를 감행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다’ (105 쪽)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멸되어 없어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을 리는 없는 것이다’ (126 쪽)

이와 같이 《원리강론》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논하고 있다. 《원리강론》에 ‘타락행위를 감행할 수 없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다’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다. 《원리강론》에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참된 의미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인간을 만물의 주관위(主管位)에 서게 하고, 인간을 사랑의 승리자로 하기 위하여 타락 행위에 간섭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원리강론》의 ‘예정론’에 ‘창세기 2 장 17 절에 인간 조상의 타락(墮落)을 막으시기 위하여 “따먹지 말라” 고 권고하신 것을 보면,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은 결과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한편 또 창세기 6 장 6 절에는 인간 시조(始祖)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創造)하신 것을 한탄하신 기록이 있는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타락되었다면 하나님 자신의 예정대로 타락된 인간을 두시고 한탄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다’ (212 쪽) 고 있듯이, 인간의 타락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은 오랫동안 기독교가 풀 수 없었던 신학적 난문제 중의 하나였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타락에 간섭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원리보다도 사랑의 힘을 더 크게 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전능성(全能性)을 위해서, 참된 의미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동반자(同伴者)”, 사랑의 “승리자”로 하고 만물의 주관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서러워하시며 패역무도(悖逆無道)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악세계를 해매셨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반역(反逆)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수 사탄에게 희생시켰으며, 나중에는 **독생자(獨生子) 예수님까지 십자가(十字架)에 내주시는 설움을 당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하루같이 서러워하셨으며’ (556 쪽)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의 승리자로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인내하고 구원 섭리를 해 오신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으로 제멋대로 사는 인간을 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랑의 전능성(전지전능) 때문에 오늘날까지 인류에 대한 “구원 섭리”를 전개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모세 때 3대 기적과 10 재앙(災殃)을 행한 하나님임을 《원리강론》은 인정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하신 사실도 《원리강론》은 인정하고 논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통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무지에서 온 비판에 불과하고, 《원리강론》의 전체상(全體像)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는 동안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240 쪽)고도 하지만 《원리강론》에 ‘**간접적인 주관을 하시므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간접주관권(間接主管圈) 또는 원리결과주관권(原理結果主管圈)이라고 한다**’ (59 쪽)고 있듯이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주관을 하시는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비판하는 것 같은 내용을 《원리강론》이 논하고 있지 않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원리강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⑥ “**통일원리**”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메시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243 쪽) 그러나 《원리강론》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원리(原理)는 이제까지 많은 신도들이 믿어 온 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갖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임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28 쪽)

‘**예수님은 창조목적(創造目的)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神性)으로 보아 그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229 쪽)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갖지 않는다’ ‘그(예수님)의 신성(神性)으로 보아 그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논하고 있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말하는 ‘예수(메시아)는……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잘못이다.

⑦ “통일원리”는 “메시아는 몇 번이고 온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메시아가 도래해도 인간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패해버린다. 과거에 실패했다. 그래서 메시아가 몇 번이고 오게 되는 것이다’ (250 쪽)

《원리강론》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고대하였던 “생명나무”는 바로 초림(初臨)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4 쪽), 또 ‘요한계시록 22 장 14 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재림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75 쪽)고 논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도래는 기존의 기독교와 같이 ‘초림(初臨)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만이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가 말하는 ‘메시아가 몇 번이고 오게 되는 것이다’는 것은 잘못이다.

⑧ ‘타락론, 창조론, 메시아론이 《원리강론》의 3 개 기둥이다’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타락론, 창조론, 메시아론을 3 개 기둥으로 하는 《원리강론》’ (257 쪽)

이 발언도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무지를 노정(露呈)하고 있다. 가정연합(구 통일교회) 공식 홈페이지의 ‘가정 연합의 교리’의 항목에서는 ‘통일 원리는 크게 ①창조원리 ②타락론 ③복귀원리의 3 개로 이루어져 있어,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등 다양한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고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고 소개하고 있다

(<https://ffwpu.jp/about/doctrine>).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가정연합의 공식 홈페이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타락론, 창조론, 메시아론’이라고 말하지만 ‘①창조원리 ②타락론 ③복귀원리’라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원리’이다.

《원리강론》 ‘창조원리’ 첫 페이지에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 된 선결문제(先決問題)가 남아 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21 쪽)고 있듯이 ‘창조론’이라는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극(究極)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선결문제(先決問題)인 것이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해명하고 있는 것이 '창조원리'인 것이다.

'통일원리'를 철학적으로 응용 전개한 《통일사상요강(統一思想要綱)〈두익사상(頭翼思想)〉》에서도 '원상론(原相論)'의 시작 부분에서 '統一思想은 인류의 모든 難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출현한 思想이다. 그런데 그러한 난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屬性에 관하여 정확히 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29 쪽) 라고 논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알 지 못하는 한 인생이나 우주의 근본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큰 전제(前提)에 대해 《원리강론》 '창조원리'의 시작 부분에서, 또한 《통일사상요강〈두익사상〉》 '원상론'의 시작 부분에서도 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타락론, 창조론, 메시아론을 3 개 기둥으로 하는 《원리강론》'이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이것으로는 《원리강론》의 "가나다라"조차도 이해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⑨ '《원리강론》 전편의 결론이 문선명 선생이 메시아다'고 논하고 있다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서는 메시아가 이제 한국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야 말로 문선명 선생입니다. 이상이 《원리강론》 전편(前篇)의 결론이다. 그러면 《원리강론》 후편(後篇)는 무엇이 써져 있는가 하면……' (257 쪽)

그러나 《원리강론》 전편을 아무리 읽어도 '성서는 메시아가 이제 한국에서 탄생한다고 예언 ……그 메시아야 말로 문선명 선생입니다' 고 말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엉터리로 된 설명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⑩ 역사의 동시성은 세계사를 대충 끊었다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무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리강론》 후편은 무엇이 써져 있는가 하면 예수로부터 2000 년이 지나 한국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연대의 전후 맞추기다.

생각의 방식은 이렇다. 구약성서의 역사와 예수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구약성서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의 2000 년간의 사건의 흐름을 연대로 구분한다. 꽤 대충 억지로 끊는다. 예수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세계사의 연표에서 연대로 구분한다. 꽤 대충 억지로 끊는다. 그러면 어머, 이상하네! 연대의 구분이 딱 일치하잖아' (257~258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구약성서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의 2000 년간의 사건의 흐름을 연대로 구분한다. 꽤 대충 억지로 끊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구약성서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 년을 보면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모세의 ‘출애굽(出埃及)’ 사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구약성서의 기술에 따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移住)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①‘애굽고역시대(埃攄苦役時代)’ 약 400 년을 걸었다. 애굽 고역 400 년은 아브라함의 상징헌제(象徴獻祭)의 실수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창 15:13).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정착을 다하고 ② ‘사사시대(士師時代)’ 약 400 년이 오는데, 이것은 사사(士師)들이 다스린 시대를 말한다. 그 후 ③ ‘통일왕국시대(統一王國時代)’ 약 120 년이 오는데, 이것은 초대왕인 사울로부터 다윗왕, 솔로몬왕의 시대를 말한다. 그 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④ ‘남북왕조분립시대(南北王朝分立時代)’ 약 400 년이 온다. 북조(北朝)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조(南朝) 유대도 신바빌로니아에게 망하여 바빌론에 포로가 되고, ⑤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약 210 년이 온다. 그리고 바빌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에스라의 종교쇄신운동에 의해 ⑥ ‘메시아 강림준비시대(降臨準備時代)’ 약 400 년을 거쳐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 구약성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2000 년도 ① ‘로마제국 박해시대(迫害時代)’ 약 400 년을 걸어, AD392 년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國敎)가 된다. 그 후 ② ‘교구장제(敎區長制) 기독교회시대’ 약 400 년이 있는데 이것은 AD800 년의 카알대제의 대관식을 놓고 끝난다. 카알대제의 대관식은 ‘유럽의 정치적·문화적 통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사건’ (《만유백과사전 9(萬有百科事典 9)》 쇼갓칸 <小学館> 547 쪽)이었다. 그 후 ③ ‘기독교왕국시대(基督王國時代)’ 약 120 년이 오는데 이것은 카롤링조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크왕국의 시대이며, AD919 년에 하인리히 1 세의 즉위에 의해 작센조가 출발할 때까지이다. 동서로 분열 후 ④ ‘동서왕조분립시대(東西王朝分立時代)’ 약 400 년이 온다. 이윽고 로마교황의 권위의 실추(失墜)에 의해 ⑤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약 210 년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AD1517 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쳐 ⑥ ‘메시아 재강림준비시대(再降臨準備時代)’ 약 400 년을 거치는 것이다. 이 역사의 동시성의 비판에 대한 반론의 상세에 대해서는 오오타 도모히사 <太田朝久> 저 《짓밟힌 신교(信敎)의 자유(踏みにじられた信敎の自由)》 (고겐샤 <光言社>, 309~319 쪽)에서 이미 반론했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예수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세계사의 연표에서 연대로 구분한다. **꽤 대충 억지로 끊는다**’고 말하지만, 이 비판은 서구 기독교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비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⑩ 《원리강론》의 ‘**의논이 복잡하게 뒤얽힌 이유는 문선명이 집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애먹은 것**’이라고 말하는 하시즈메 씨의 악의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둘째로 창조론. 《원리강론》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 창조론은 타락론에 비해 논의가 복잡하고 매우 혼잡하다.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논이 복잡하게 뒤얽힌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문선명이 집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애먹은 것.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요리조리 구실을 달아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또 하나는 원래 양립하지 않는 다른 원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립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연결하기 때문에 논리가 파탄 난다. 그것을 얼버무리고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처럼 보이는 용어를 군데군데 끼워 넣고 불필요하고 어수선하게 한다’ (237 쪽)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원리강론》에 대해서 ‘문선명이 집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애먹은 것’이라거나 ‘논리가 파탄난다. 그것을 얼버무리고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스러운 용어를 군데군데 끼워 넣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빗나간 논평이다. 문 선생의 3 제자 중 한 사람인 유효원 씨가 문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원리강론》을 집필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하지만, 예수 때의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 길을 막힘없이 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유효원 씨가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 선생은 《원리강론》의 초판의 출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리강론》 초판 출판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는 무엇을 해 나왔느냐? 진리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선집 65-90~91, 1988년 맞춤법 규정 변경에 따라 ‘읍니다’를 ‘습니다’로 표기함), “원리책(《원리강론》)에는 **역사관이 나오는데, 그게 적당히 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선집 214-150), “**근본문제를 다 헤쳐 가지고 이론적으로 모두 하나 하나 정립해 놓고, 정의를 내려 가지고, 현실사회에 맞는 술어를 만들고……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주먹구구와 무지에서 완성이 있어요?**” (말씀선집 121-109), “**메시아와 완전히 하나돼야 탕감되는 거라구요. ……통일교회에서는 유효원 협회장이 그런 (세례 요한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말씀선집 62-255)’ (《참부모님 생애노정④ (眞の御父母様の生涯路程④)》 366~369 쪽)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유효원 씨는 한국어 《원리강론》을 집필하고, 1966년 5월 1일에 《원리강론》을 출판했지만, 그 출판 전에 《원리강론》의 논술이 올바른지 어떤지를 문 선생에게 자세하게 물어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 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원리강론)을 유 협회장이 쓴 게 아닙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문 선생의) 감정을 받았습시다. 내가 허락 안 하고는 손대지 못해요**’ (말씀선집 266-268, 《패밀리(ファミリー)》 1995년 2월호, 63 쪽)

《원리강론》을 출판할 때 유효원 씨는 문 선생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것이다.

특히 창조원리에 관하여 유효원 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 문 선생이 직접 지도한 것이지만, 유효원 씨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창조원리 제 1 절을 다시 한번 써야 한다.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이 모든 전재의 근본이 된다는 논증이다. 선생님이 진리의 본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유효원 씨의 일기장에서, 1966년 2월 3일자)

《원리강론》은 문 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유효원 씨가 집필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문 선생이 밝힌 진리인 것이다.

또 ‘통일원리’를 철학적으로 응용 전개한 ‘통일사상’을 집필한 이상헌(李相軒) 씨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필자(이상헌)는 1956년 入教後 문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사상) 속에서 인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놀랍고도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 때 나에게 비쳐진 선생님의 모습은 진리의 寶庫요, 사상의 湧泉이었다. 한번 말씀이 시작되면 몇시간이고 계속해서 사상의 샘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 가르치시는 진리의 사상에 陶醉되어 시간가는 줄을 모르는 때도 非一非再하였다. 그만큼 그 말씀 모두가 나에게서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통일사상요강 <두익사상>》 23 쪽)

‘통일사상’에 관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어서, 참가한 세계의 석학(碩學)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상이다. ‘통일사상’은 원상론(原相論), 존재론(存在論), 본성론(本性論), 가치론(價值論), 교육론(教育論), 윤리론(倫理論), 예술론(藝術論), 역사론(歷史論), 인식론(認識論), 논리학(論理學), 방법론(方法論)이라는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체계화된 사상이다. 이 사상은 모두 문 선생이 해명한 내용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양립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연결하기 때문에 논리가 파탄한다. 그것을 얼버무리고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라고 말하는데, 논리가 파탄한다면 《통일사상요강》이라는 논리의 체계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리강론》이나 《통일사상요강》은 문 선생이 밝힌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문 선생이 직접적으로 집필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는 2000년 전 예수 때에도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가 신약성서로 편찬되고 오늘날까지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독교의 초기 시대에는 로마제국으로부터 격렬하게 박해되었고 기독교 신도들은 큰 오해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가정을 파괴시킨다’ ‘종교적인 모임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인육(人肉)을 먹고’ ‘술에 취해’ ‘간통(姦通)을 행하고’ ‘근친상간(近親相姦)을 한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시킨다’ (Harry R. Boer <보어> 저 《초대교회사(初代教會史)》 79 쪽)는 집단이라고 비난받고, ‘인두세(人頭稅) 납부(納付)를 거부(拒否)했다’(Earle E. Cairns <케언즈> 저 《기독교전사(基督教全史)》 128 쪽)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오해이다.

이것은 소수파였던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마제국의 약 4분의 1의 종교 인구의 기반을 자랑했던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고, 오랫동안 기독교가 수난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요 16:12)고 하고, 말하고 싶은 많은 내용을 말하지 못한 채 죽은 것이다. 왜 그런가 라는 의문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원리강론》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타락된 인간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249 쪽) 라고 있듯이,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기대’를 되찾지 않으면 메시아는 자유롭게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기대’를 ‘메시아를 위한 기대’라고 한다. 이것을 세우고 메시아의 길을 막힘없이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獨生子)로서 영광의 주(主)로 오셨으므로 원칙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앞길을 곧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당했어야 할 고난을 예수님 자신이 당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도 세례 요한 대신으로 복귀섭리노정(復歸攝理路程)을 출발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이다’ (《원리강론》 375 쪽)

이와 같이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섭리적 기반의 조성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스스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있어야만 예수님은 마음껏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태복음 13 장에 예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길 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결실을 못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반, 소지가 없으면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 사회에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지극히 중대했던 것이다. 그런 섭리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하늘의 말씀을 가져온 예수님이 마음껏 모든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는 예수의 말씀의 ‘타박하기’만 했던 것이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마 22:15),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엿보니’(눅 6:7),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눅 11:54),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눅 20:20, 막 12:13) 라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류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자로만 보였던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 선생의 말씀은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문 선생을 알아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고, 타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효원 씨는 문선생이 '진리의 실체'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문 선생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2000 년 전의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자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원리강론》의 심오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논의가 복잡하고 매우 혼잡하다'고 하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문선명이 집필에 어려움을 느끼고 애먹은 것.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요리조리 구실을 달아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라고 말하고, 게다가 '양립하지 않는 다른 원리를 연결하고……역지로 연결하기 때문에 논리가 파탄 난다' 등, '진실처럼 보이는 용어를 군데군데 끼워 넣고 불필요하고 어수선하게 한다'(237 쪽)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독해력이 없는 논평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에게 바라는 것은 진지하게 《원리강론》의 전체상을 읽어 보는 것 및 그것을 철학적으로 응용 전개한 《통일사상요강》을 제대로 읽어 보고 나서 바르게 논평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이 논평은 모두 요점을 벗어난, 제대로 된 논평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서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80년대에는 탈세로 문선명이 적발되어 실형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헌금을 받은 목사를 탈세로 적발하는 것은 자주 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문선명과 통일교회는 큰 좌절을 겪었을 것이다' (268 쪽)

이 탈세 혐의로 문 선생은 미국 코네티컷주의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지만, 이것은 종교 박해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칼튼 셔우드 씨가 《Inquisition(이단 심문)》을 출판하고 그 진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인퀴지션의 역할' 이라는 제목에서 가정연합 관련의 출판물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기자출신으로선 유일하게 폴리처상과 피바디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칼튼 셔우드(carlton sherwood) 씨가 5 년여에 걸쳐 완성한 705 쪽에 달하는 서적 《인퀴지션(Inquisition: 조사, 탐색, 이단자 탄압이란 뜻)》이 레그네리 게이트웨이 출판사 발행으로 미국내 주요서점에서 시판됐다. 이 책은 80 년대 초 문선명 목사를 탈세혐의로 투옥시킨 연방정부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및 관용을 내세우면서도 종교차별의 역사가 미국 속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폭로하며, 1970 년대

중반 무르익었던 코리아게이트 사건에서부터 1984년 참아버님(문 선생)이 투옥되기까지 연방법무부국세청(IRS) 그리고 사법부가 3 박자를 맞춰 헌법 제 1 수정조항까지 무시하며 소수민족이자 작은 종교그룹의 지도자인 한 사람의 약자를 제도적으로 읊아맨 사실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 (《참부모님 생애노정⑨》 218 쪽)

칼톤 셔우드 씨가 '이단 심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 선생의 수감은 미국 정부의 일부 임원에 의한 종교 박해였던 것이다. 사실, 이 수감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우파(제리 폴웰 <Jerry Falwell>씨)로부터 좌파(조셉 로워리 <Joseph Lowery>씨)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 선생은 무죄이다"로서 일어서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 수감 전후에 약 7000 명의 목사들이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을 방문해 문 선생의 사상을 배운다고 한 것이다. 이 움직임이 오늘의 미국에서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가 결성되어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총재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는 '이 사건(탈세로 소송된 문제)에서 문선명과 통일교회는 큰 좌절을 겪었을 것이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확실히 정반대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가정연합은 미국에서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이상, 하시즈메 다이자부로 씨의 《일본의 컬트와 자민당》에 기술되어 있는 교리면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주된 반론을 끝내기로 한다.

—이상—